



2023년
사순절 묵상집
보스톤 한인교회



“내가 비마...”

이영길 목사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요한복음 19:34)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로마서 8:34)

‘인문학을 하나님께’의 저자 한재욱 목사님께서 청년 시절 한 아가씨와 사귀게 되었는데 여러모로 가정환경 등 감히 결혼까지는 엄두도 못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어머니와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답합니다.

“내가 비마...”

처음에는 무슨 말씀인가 의아해 했다고 합니다. 장차 장인 어른댁이 되실 분들에게 가서 빌겠다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행복한 청년이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장인 어른 가족께 빌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신 어머니가 옆에 계시니 말입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모두 다 행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하늘 보좌 우편에서 늘 빌고 계시는 분이 계시니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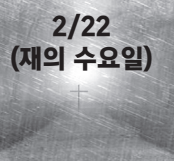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비시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과정이 있으셨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먼저 해결하셔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려 오셨습니다. 갯세마네를 거쳐 십자가에 매어 달리셨습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들은 참회, 절제, 구제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을 깊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빌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비마...”

올해도 수고해 주신 홍보위원회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 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시편 4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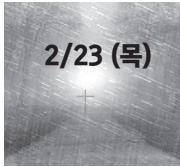
사순절 묵상집을 준비하며 12년 전 제가 고등학생 때 썼던 사순절 묵상글을 우연히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그 때 어떤 심정으로 글을 썼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학교로 인한 스트레스와 많은 시련을 겪었고, 그런 시련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 또한 많이 체험하였기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 질 수 있었다” 라는 문장이 눈에 들어 왔습니다. 도대체 어떤 많은 시련들을 겪었기에, 그 시련들을 통해 기적을 체험했는지 라는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주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한 것은 공감을 하나 많은 시련들을 겪었다는 부분은 12년 후의 저에게는 완벽히 공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좀 더 솔직히 말하자면, 그 때의 시련들은 지금 내가 겪고있는 시련이나 걱정거리에 비해 너무나도 작게 느껴졌습니다.

다시 12년전의 제 마음으로 돌아가 그 때의 시선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에서 이민을 온 지 몇 년 안 되었던 저는 새로운 언어와 환경 속에서 적응하고 있었고,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오신 부모님에게 실망을 시켜드리지 않기 위해, 또 제 자신의 미래를 위해 대학입시를 놓고 많이 기도하고 노력했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때는 대학입시가 저의 삶의 큰 부분을 차지 했기에 그로 인한 스트레스와 걱정이 많았었습니다. 12년 전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속에서의 저의 심정은 아마도 광야 속에서 있는 거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12년전의 저에게로 돌아가 말할 기회가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괜찮아 네가 이루고자 계획했던 것 거의 대부분 못 이루어. 대신 너가 생각하지 못한 많은 은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 믿음 놓지 말고 계속 노력하고 기대해봐.”

12년 후인 지금 제 삶은 많이 달라 졌지만, 미래의 대한 불확실함과 그로 인해 오는 걱정은 아직 제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준비해주신 광야 속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광야가 가장 어둡고 추운 곳이라 생각되며 외롭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과거의 나를 되돌아 봤을 때 주님은 저를 광야 속에서 훈련시키고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돌아 봤을 때 내가 지나온 곳은 광야가 아니라 주님께서 준비해주신 축복의 길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울부짖음을 늘 들어 주시고 위험 속에서 끌어 올려 주십니다. 때로는 그 기다림이 길어지고 힘들어 질지라도 주님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간직하며, 광야에서도 주님을 향한 기쁨과 찬양이 제 마음 속에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를 광야로 던져 주세요. 그 속에서 저를 훈련시켜 주시고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를 때

윤병준 집사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시편 42:11)

기쁨은 아침에 일어나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면서 몸도 마음도 한없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오늘 나를 기다리고 있을 하루의 일들과 만남이 기대가 되기보다는, 과연 내 앞에 놓인 그 일들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지, 눈 앞에 닥친 문제들은 잘 해결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답답한 마음, 막연한 불안감이 엄습해 오고는 합니다. 아마 정도 차이는 있더라도 누구나 대부분 이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을까 짐작해봅니다.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고, 아직 다가오지 않은 앞날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머리 속을 가득 채울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편 42편을 읽어보면 시편 기자도 비슷한 경험을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슴이 숨을 헐떡이며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갈급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분의 위로와 도우심이 너무나도 간절한데... 예전에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하고 예배했던 기억들은 빛바랜 옛 사진처럼 희미해지고, 도대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세상의 조롱하는 소리는 가까이에서 너무나도 크게만 들려서 마음이 깊이 상하는 그런 때 말이지요.

그런데 예전부터 이 시편을 읽으면서 늘 마음 한 구석에 들었던 의문이 있었습니다. 시편 기자가 자신이 의지할 유일한 반석이셨던 하나님마저 자기를 잊어버리시고, 자기 홀로 원수의 압제에 내동댕이 쳐져 버린 듯한 외로움과 절망에 허덕이며 울부짖다가도, 어느새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5절, 11절)”라며 고백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바로 전 구절들까지만 해도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하소연하며, 자신의 갈급함과 상실감, 자기가 겪고 있는 고통과 슬픔을 토로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갑작스럽게 자신은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겠다고 고백하는 부분이 조금은 낯설고 이해가 잘 가지 않았었습니다. 도대체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대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걸까요?

오랫동안 제 안에 남아있었던 이 궁금증은 한참 뒤에야 풀리게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시편 기자는 자기 영혼에게 외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¹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자신의 눈 앞에 펼쳐진 절망적인 상황들, 자기를 둘러싼 대적들의 위협, 그리고 자기 주변의 많은 이들의 조롱에 설득되고 압도되어 낙심한 자신의 영혼을 향해 시편 기자는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영혼을 청중으로 삼은 설교자가 되어서.

이 사실을 배우고 난 이후,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누를 때 - 내 앞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들,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한 미래 앞에 무력해질 때 - 저도 시편기자가 했던 것처럼 종종 스스로에게 선포하고는 합니다. 눈 앞의 현실에 설득되어 버리지 말고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도우시고,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구하라고 설득합니다. 그때마다 결국 나를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한숨이 흘러 나오던 입술에서 어느새 다시 찬송이 흘러나오게 하시는 그분을 다시 기대하게 됩니다.

“Why are you down in the dumps, dear soul? Why are you crying the blues? Fix my eyes on God — soon I’ll be praising again. He puts a smile on my face. He’s my God.”
(Psalm 42:11, The Message)

¹ 마틴 로이드 존스, “Spiritual Depression: Its Causes and Cure” 참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삶의 무게가 저희를 짓누르고 저희를 둘러싼 현실에 압도되어 낙심될 때, 시편 기자가 그랬듯 저희도 저희의 영혼을 향해 저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큰 소리로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차 검사 스티커처럼

2/24 (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18)

12월 초 우연히 차 앞 유리창 오른쪽 윗 구석에 있는 차 검사표(Annual Inspection Sticker)가 10월 인걸 알았어요. 저희 두 차가 똑같이 유효기간이 지나, 동네 주유소에 자동차 검사표를 받으러 갔었어요. 차 한대는 쉽게 sticker를 붙였는데, 다른차는 몇 가지 문제가 있네요. 근간 법이 바뀌어 번호판이 앞과 뒷면에 있어야 하며, 번호판 글자가 현재의 초록색이 아니라 붉은색이어야 하며, 또 타이어가 너무 닳았다는 것이예요. 우선 집에 있는 겨울철 snow tires 4개를 신고 가서 Tire Co.에서 바꾸고, RMV (Registry of Motor Vehicles)에 가서 같은 번호로 적색 번호판 두개로 바꾼다는 증명을 받아 와서야 차 검사표를 붙일 수 있었지요. 50년간 미국에서 운전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으로 당했어요. 이웃과 우리 운전자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참 철저히 잘 한다고 생각되지만...

매년 맞이하는 사순절이 마치 '매년하는 차 검사표 붙이기' 같은게 아닐까 생각되었어요. 사순절은 40일간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회개와 용서, 절제와 금식, 화해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닦으며 우리를 위한 주님의 고난과 사랑을 기억하는 기간이라 하지요. 우리들이 모르는 사이에 타이어가 다 닳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태인데도 운전하고있는 것처럼, 습관화되어 버린 신앙생활로 활기없고 무기력한 신앙을 함께 점검하는게 사순절인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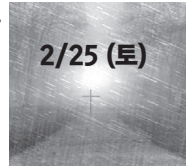
주님이 갯세마네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세번이나 기도한 것 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굳게 다짐하는 계기로 이번 사순절을 맞이하고 싶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선물로 주신 하루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쁘게 맞이하는 것 처럼 이번 사순절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뜻대로 우리를 빚어 주세요' 하며 준비하고 있어요. 특히 창립70주년 기념 행사 주제가 '감사'인 것 처럼, 이런 개인적 감사들이 모여 교회적으로 큰 감사 덩어리가 되어 하나님이 들으시는 큰 감사의 기적이 일어나는 사순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회개와 금식과 구제 위에 감사하며 주님만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이번 사순절 되게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순: 듣는 마음’

진정원 집사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서 1:19)

공자는 우리 삶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40세 ‘불혹’까지의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완성의 시간을 넘어, 50세 ‘지천명’을 거쳐, 60 세 귀가 순해진다는 뜻의 ‘이순’에 이르러야, 소리가 귀로 들어와 마음과 통하기에 거슬리는 바가 없고 아는 것이 지극한 경지에 이르렀기에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얻어지는 때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말하는 것에 이르는 시간이 2년인 것에 비해 제대로 듣기까지는 60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보면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어려운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육십세가 되지 않은 저는 직업병인 급한 성격으로 짝 ~ 단혀져 있는 귀에 말이 많은, 부족한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리신 솔로몬 왕의 일천번제 후에,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는 하나의 질문에 실제로 구한 것이 부귀 영화가 아닌,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지혜로운 마음 즉 ‘듣는 마음’이었음을 깊이 묵상해 봅니다.

지혜를 구하는 것과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것은 무엇이 다른지를 생각해봅니다. 전자는 그 받은 것으로 일어난 일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 상황 판단을 잘하는 것이겠지만, 후자 듣는 마음으로는 판단 이전에 전체의 상황을 살피며 왜 그렇게 넘어져야 했는지를 헤아려 보는 공의의 마음일 듯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지금 세상에서 어떤 이들은 희망을 가지고 살려 힘껏 노력했지만 기대와 다른 결과를 이해해주고 그러한 타인의 다른 형편을 헤아려주는 마음이 허락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의 씨가 제 머리에 심겨, 가슴에 아름다운 빛깔의 꽃이 피고, 손과 발에는 풍성한 열매가 그리하여 이 모든 것들이 이웃들에게 전해지는 2023년 올해의 사순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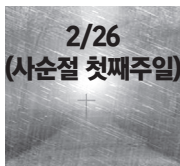
듣는 마음으로, 정신 차리고 기도하며, 뜨겁게 사랑하며, 원망 없이 대접하며, 은사의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는 시간이 허락되는 시간들을 그려봅니다.

부족하지만,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동일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바로 이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허락하신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세상의 욕망에 절제하며, 순종하는 마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마태복음 5:1-5)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6번의 주일을 뺀 40일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참회, 절제, 구제의 시간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솔직히 사순절만 오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40일인가?’ 물론 잘 아실줄 압니다. 40일을 지키는 이유는 성경에 여러 군데 40일 내지 40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40일 계속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기 전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후에 모세가 이끈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40일간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는 40년 아니면 40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를 잘 아는 믿음의 선배들이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40일 곧 사순절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40일을 지키게 된 이유는 한편으로는 주님의 고난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회의 기도와 절제와 구제를 합니다. (중략)

먼저 온유한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중략) 제일 좋은 방법은 성경에 온유한 자로 표현된 분들을 찾아 보면 이해하기가 쉬울줄 압니다. 대표적인 분은 주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1: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은 스스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도 착한 할아버지와 같은 모습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은 것을 보면 좀 다르기도 합니다. 하여튼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신데 우리와는 좀 비교하기가 어려우니 두 번째로 온유하다고 표현된 사람을 찾아 보겠습니다.

주님은 온유하시기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들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입니다. 나머지는 시간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들에게 부활의 축복의 땅을 허락하십니다.

[2022.3.6 사순절 첫째주일 설교문에서 발췌]

나는 가시나무 - 시(詩)로 드리는 묵상 김(조)옥동 권사

2/27 (월)

“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2-3)

흙탕물 굽이돌아 맑은 강 흐르게 하시고
구름을 옮기고 하늘을 펼치며
홍수가 지고 눈발이 휘날려도
계절의 네 모퉁이 지나는 동안
푸성귀와 나무는
뿌리 내리고 키를 키우며
그림자 풍성한 잎새를 달고
열매 여물게 하시는 이

하늘의 별보다 높으신 자리에서
삶의 외줄 꼭 잡아 주시고
허무한 욕망을 버리기만 하면
겸손히 무릎 꿇고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저절로 눈물짓게 하시고 위로하시며
오늘이 고달프고 슬픔 뿐 일지라도
서러움에 주저앉지 않을 것을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를 깨닫게 하시는 이

해가 저물고 어둔 밤 다가오면
골목에서 뛰놀던 아이들 돌아 갈 집이 있듯
광야를 지나 오랜 순례의 삶 마감하는 날
우리 당도할 영원한 집에 반겨주실 이

나는 압니다
못 자옥 난 손과 발
가시관을 쓰신 머리의 상처는
가시나무 우리들, 큰 가시인 나 때문인 것을
뜨거운 피로 자비의 참 마음을 뿌려주신 이

함께 일어나, 옷깃을 여며 숨결 고르리다
부르실 날 언제일지, 그날까지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되어 기쁨으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바로
서게 하소서, 아멘



땅에 떨어지지 않는 말씀따라 살기

김희진 사모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상 3: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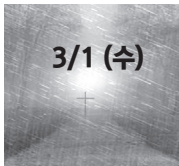
And Samuel grew, and the Lord was with him and let none of his words fall to the ground.

코로나19으로 인해 많은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던 2020년부터 지금까지 새벽마다 저에게 말씀을 전달해주는 고마운 친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좋아서 매일 큐티를 하던 중, 제가 생각나서 나누고 싶은데, 아무 답장 하지 않아도 되니 보내도 되겠냐는 배려있는 메시지를 따라 우리의 여정은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기는 원하지 않는 이중생활을 하던 때였습니다. 이유를 모르는 등통증으로 밤새 뒤척이고, 해가 뜰때면 이미 지친 상태였지만 하나에 집중하면서 생기는 긍정의 힘으로 버티며 하루를 보내곤 했습니다. 오랫동안 떠나지 않는 통증이 강한 진통제에도 진정되지 않으니, 점점 몸과 마음이 내 것 같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마사지에 간신히 잠이 들었다가도 새벽 1시, 2시, 3시 아무때나 찾아오는 왼쪽 등의 통증에 잠이 깨면 호흡 사이에 아프지 않은 부분을 찾아 몸을 움직이다가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한밤중에 뜨거운 물줄기를 맞으며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유를 몰라도 되니 잠시라도 통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세요.” 엉엉 울면서 끝이 보이지 않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밤새 무슨 일이 있든 상관없이 아침이 되면, “엄마, 배고파요” 하는 작은 목소리에도 별떡 일어나 음식을 만들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가족이 나를 일으켜주는 천사구나’ 하며 ‘배고파 천사’와 함께 힘을 냈습니다. 하루 중, 친구가 보내준 하나님 말씀을 열어보면, 몸과 마음 모두 지치고 배고팠던 나에게 사랑으로 갖지은 정성스러운 밥상이 되었습니다.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고,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말씀, 십자가 사랑으로 같이 아파하시며 몸과 마음을 안아주셨습니다. 말씀이 베개가 되어 잠을 잘 수 있었고, 저도 하나님께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며 기도편지를 쓸 수 있는 힘이 조금씩 조금씩 생기니 어떻게 이 시간이 기다려지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잠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면, 나와 함께 하심이 감사하고 벅차올라 자꾸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을 입으면 쓰라린 시간이 회복되고 만군의 여호와와 나의 앞과 뒤에서 지휘하고 지키심에 떨구었던 시선을 들게 되니 자꾸 하나님을 찾고 싶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니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따라 순종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며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이렇게 일주일 살아보기, 한달 살기가 아니라, 평생 하나님 음성을 들으며 사는 것이 소원입니다. 요즘도 저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친구와 함께 (짜꿍을 주심도 감사)하나님 말씀에 귀기울이는 시간이 하루중 가장 소중한입니다. 자주 하나님께 기도편지를 쓰며 설레는 마음으로 소리내어 봅니다. “연약한 저를 긍휼히 여기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 죄대신 화관을, 슬픔과 두려움대신 평안과 기쁨의 옷을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결코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심을 전하고 싶어요. 오늘도 벌떡 일어나 새 옷을 입고 전할 수 있게 저를 인도해주세요.”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말씀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 옷을 입혀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내 마음의 고향

최정열/허경희 집사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전도서 12:1)

부산 서울 인천 제주 보스톤 자카르타 찍고 오스틴.

이렇게 여러군데 돌아 다니면서 살다 보니 고향이 어디인지 헷갈립니다. 부모님 다 소천 받으시고 보니 무일푼 되면 돌아갈 고향의 집은 진작에 없어졌고..., 이전에 Cohasset, MA 에서 살 때 달에 비친 밤 바다를 보면서 큰 아들 진규에게 이런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진규야 나중에 아빠 죽거든 화장해서 Cohasset 앞 바다에 뼈 가루의 3분의 1, 제주 앞 바다에 3분의 1, 그리고 발리 앞 바다에 3분의 1을 뿌려다오.”

보스톤을 떠나오기 약 8년 전 하나님이 과연 창조주이신가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고백은 하겠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알겠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도 믿기는 하겠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주관자이신가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누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참으로 어리석은 질문인지는 몰라도 나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위해 참으로 오랫동안 씨름하였고, 결국 확신이 섰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생활이 정말로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기 텍사스 오스틴에서 믿음 생활은 무척이나 은혜스러웠습니다. 모든 생활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고 감사와 은혜의 생활로 누가 보던 안 보던 누가 도와주던 도와주지 않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힘껏 찾아서 했습니다. 헌데 급기야 팬데믹이 되어 버리니 혼자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정말로 힘들다 지칠만큼 섬겼습니다. 그러다 예배를 드리지 못 하던 날 문득 생각나던 보스톤한인교회 유튜브 방송.

참으로 오랜만에 보는 본당. 예수님이 비치는 스테인글라스 그리고 낮 익은 얼굴들... 찬양대...아..저기에 내가 있었지. 나도 모르게 밀려오는 추억. 고향의 포근함. 어머니의 품과 같은 아늑함과 잔잔함. 조용히 들려오는 목사님의 말씀... 그 말씀과 함께 소용돌이 치며 밀려오는 도전과 격려. 아...저기에 내가 있었지. 나의 청년의 때 그리고 장년의 때.. 내가 저기에 있었지. 내가 하나님을 찾으며 몸부림 칠 때 저기에 있었지. 나는 어느 덧 예배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고향의 향기에 취하면서 어느 덧 보스톤한인교회는 내 마음의 고향이 되어 버립니다.

그랬네. 나에게도 고향이 있었네. 내 마음의 고향.

내 마음의 고향을 온전히 지키고 가꾸어 나가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보스톤 한인 교회가 하나님이 진정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모든 성도가 창조주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와 사랑을 느끼면서 섬길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

‘나’의 경계 - 上

안성민 교우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피 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시편 139:1)

보스턴에 있는 창문의 개수는 무엇일까요?

이 뜬금없어 보이는 질문을 답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봅니다. 신체 부위를 논하면 ‘나’의 상한은 뚜렷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인체는 공간으로써 제한되어 있으니, 저희 몸 밖에 존재하는 공간의 상한이 있는 건 없겠죠. 물론, ‘나’를 보는 다른 사람들을 제외해야 되겠지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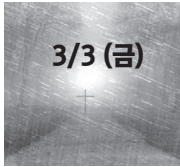
일면 일식이 없는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과, 친구/가족들이 ‘나’를 보는 것과, 내 자신이 ‘나’를 보는 것은 완벽히 일치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이 중 누구의 ‘나’가 ‘나’일까요? 내 자신이 보는 ‘나’를 앞세우기엔 제3자의 의견을 받아야 할 때가 너무 많고, 그렇다고 그들이 ‘나’를 완전히 아는 건 아니겠죠. 결국엔 ‘나’로 ‘나’가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지도가 높아질수록, ‘나’의 상한도 커지는 걸까요? 결론적으로 ‘나’의 상한은 ‘나’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봅니다. 보스턴에 있는 창문의 개수의 상/하한을 생각할 때, 보스턴 지역의 정의, 창문의 정의,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답해도 하한은 대략 0, 상한은 10의 82승(현재 우주의 원자의 수의 근삿값)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짹짹한 대답은 질문을 회피할 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제일 높은 하한과 제일 낮은 상한이기 때문이죠. 이 둘이 동의 하는 수가 정확한 값인 겁니다.

비슷하게, ‘나’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은 ‘나’의 근삿값 밖에 모릅니다. ‘내’가 숫자 4 라면, 보통 ‘3과 5 사이 어느 숫자’정도까지 밖에 확신을 못 한다는 거죠. 하지만, 전에 말했다시피, 저희 자신도 ‘나’를 다 알지 못 합니다. 예상하셨겠지만, ‘나’를 정확히 아는 분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공간적인 존재의 하한은 공간적인 한계에 살포시 얽혀 있으며, 상한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보시는 우리면, 우리의 존재의 정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의존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의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뿐더러, 서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귀한 창조물들인걸 기억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다. 그런 저희를 자녀라 불러 주셔서 감사합
니다. 그 감사함을 통해 서로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완전한 죽음이 부활의 시작입니다

선혁 집사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릇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역대하 20:18-19)

조용히 얼굴을 떨구고 성전의 새 뜰 앞에 서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한 왕을 봅니다. 그 뒤로 모든 유다 백성들이 나아와 함께 금식하며 왕의 뒤를 지키고 있습니다. 왕은 금식과 함께 모두 성전 앞으로 모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렇게 모인 온 회중 앞에서 왕은 간절히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유다를 치러 달려왔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회중의 눈에는 두려움과 절망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촌각을 다투는 시간인데, 왕은 기약없이 금식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 왕의 마음에는 후회와 괴로움이 교차합니다. 싸우러 나가기엔 적의 무리가 너무 강했습니다. 도움을 구할 아합도 지난 전쟁에 죽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 같은 불길한 생각이 가득 차들어 왔습니다. 선견자 예후의 책망이 마음에 걸렸지만, 그래도 성전을 향해 나아왔습니다. 이제 남은 구원은 하나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뒤로는 성전의 레위 사람들과 유다의 백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금식하며 자신만을 바라보는 절망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들이 머리를 깎인채 끌려가는 모습이 머리에 떠오르니, 눈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터지는 목소리로 울부짖습니다. 구원하소서! 후회와 괴로움이 회개가 되어 터져나옵니다. 두려움의 눈물이 발악이 되어 터져나옵니다. 미래의 절망과 두려움의 상상들이 엄습해 옵니다. 그 마음을 이기기위해 더 부르짖습니다. 도와주소서!

그렇게 왕은 계속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내 목을 감싸며 주저 않습니다. 많은 무리는 조용히 잠잠히 듣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한 채, 초점을 잃은 눈으로 멍하니 성전과 왕을 번갈아 바라볼 뿐입니다. 왕이 그토록 가르치던 솔로몬의 하나님이 행어나 나타날까? 그 약속이 진실일까? 의심과 두려움이 섞인 눈으로 성전과 왕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때 고요한 적막 가운데 한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두 손을 하늘로 높이 들고, 단단하고 결의에 찬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적막 가운데 외치는 야하시엘의 계시어, 여호사밧은 털썩 주저앉아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긴 외침과 절규에 이미 목은 쉬었지만, 한마디 한마디 내뱉는 것이 들썩

거리는 몸을 통해 보였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땅에 머리를 박고 부르짖었습니다. 이내 야하시엘의 입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이 임합니다.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마치 토하듯 소리치는 그의 목소리가 성전 뜰 가득히 울려 퍼졌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온 회중을 뒤덮었고, 온 회중은 엎드려 머리를 땅에 대고 그 임재에 압도당해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잠잠히 성전 옆에서 있던, 그핫자손과 고라자손에 속한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을 목이 터져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는 소리가 성전 뜰을 가득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찬양은 절규가 되어 울려 퍼졌습니다. 절규는 울음이 되었습니다. 울음은 다시 기도가 되었습니다. 기도는 다시 계시가 되어 큰 소리로 울려 퍼졌습니다. 온 뜰 안에 주의 영에 감동된 수많은 찬양의 소리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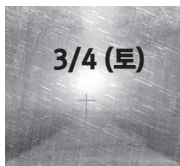
이내 온 무리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새 뜰 안에 모든 회중이 엎드려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살려 달라고. 도와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자신들의 두려움과 절망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온 몸에서 눈물과 콧물과 땀이 범벅이 되어서, 땅에 얼굴을 대고 부르짖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날의 성전 앞은 놀라웠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자신의 목숨이 자신의 것임을 주장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자신의 구원자가 하나님이심을 의심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왕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두가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완전한 죽음과 완전한 절망은, 울부짖는 찬양이 되었고, 그 찬양은 향기로운 기도가 되어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 절망의 눈물이 소망으로, 두려움의 마음이 단단한 믿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오늘 죽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리라.’

기도합니다. 절망과 두려움의 죽음 앞에서, 새롭게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떠하셨을까요? 삶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길은 완전한 죽음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깨닫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살리시는 부활의 시작임을 깨닫습니다. 이번 사순절에도 다시 한번 그 날을 기억하며, 두려움 마음으로 주님앞에 완전히 죽었음을 선포하길 원합니다.

성전의 새 뜰의 아름다운 부르짖음이 사순절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석류



“네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네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의 네 뺨은 석류 한 쪽 같구나.” (아가서 4:3)

나는 가끔 커다란 빨간 석류를 한개씩 산다. 살짝 칼집을 내어 조심스럽게 쪼갠다. 영롱한 빨간 석류알이 반짝거리며, 촘촘히, 구석구석에 빈틈없이 딱 박혀 있다. 나는 이 놀라운 석류 속을 볼 때마다 “어쩌면, 이럴수가!” 경탄한다.

오늘은 이 글을 쓰기 위하여 성경말씀 중에 석류에 대하여 찾아 보았다. 몇 군데의 말씀을 찾아 재미있게 읽어서 여기에 간단히 소개한다

석류는 이스라엘 땅의 7가지 주요 농산물(밀, 보리,포도, 무화과, 석류, 올리브, 대추야자) 중의 하나이다.

출애굽기 20:15 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 광야를 지날때 불평하며 그리워 한 과일 중 하나이다. 그들이 애굽에서 힘든 노동을 하는 중에도 새로운 힘을 주고 시원하게도 해 주는 이 물기 많은 석류를 먹었을 것이다.

민수기 13:23 에서는 모세가 보낸 12명의 가나안땅 정탐꾼들이 들고 온 3 가지 탐사룬 과일 중 하나이다(포도, 석류, 무화과). 정탐하고 온 가나안 땅이 아주 비옥 하다는 뜻이다.

아가서 4:3, 7:12, 8:2 에서는 석류는 순수하고, 부요하고, 사랑스럽고, 지극히 아름다움을 상징한다. 출애굽기 28:33-35 에서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 제사장의 옷 자락 끝에 금방울과 수놓은 석류를 번갈아 달아야 될 것을 명하였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금방울과 생명의 충만함과 풍성한 결실을 상징하는 석류를 수 놓아 하나씩 번갈아 달도록 명하였다.

또한 석류의 짙은 빨강 물은 구약시대 때 율법을 쓰는 잉크로 사용했다.

이런 성경적인 뒷 반침이 아니더라도 모든 과일이 다 경이롭지만, 나는 늘 석류를 깔때마다 경탄하곤 한다. “어떻게 살아야 이렇게 확실하고, 사랑스럽고, 반짝이는 열매로 딱 찬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주님께서 이런 아름다운 삶을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실까??” 나는 잠깐씩 이런 생각에 사로 잡힌다.

나는 볼품 없이 잘 영글지도 못한 칙칙한 작은 씨앗이 여기 저기 박힌 못난 석류 같은 내 모습을 잠깐 그려보며 한 숨을 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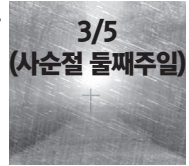
주님, 너무 너무 죄송해요.

그러나 주님의 피로 빨갱게 물든 반짝거리는 빛나는 석류 알처럼 성도들이 가득 찬 영광스러운 천국의 모습도 상상해 본다. 그 중에 나도 작은 석류 알 처럼 곱게 박혀서 가슴 벅찬 찬양을 부르게 하실것을 믿으며 내 부끄러움도 살며시 내려 놓는다.

주님, 사랑스럽고 빛나는 석류씨 처럼 저의 믿음도 영글어 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이영길 목사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마태복음 5:1-6)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마태복음 5:1-6)

2008년도 미국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바마라는 젊은 흑인 정치인이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 여건이 맞아 떨어져서 대통령이 되었겠지만 그로 하여금 대통령이 되는 길을 열었던 계기가 있습니다.

오바마의 어린 시절은 그다지 행복하지 못한 편이었습니다. 아프리카계 흑인 아버지를 둔 탓에 다문화적 가족력을 소유한데다가 이른 나이에 결혼한 부모는 그가 어렸을 때 이혼을 했습니다. 그의 혼란과 고민은 예민한 사춘기 소년이 감당하기에 벅찼다고 합니다. 결국 오바마는 술과 담배 마리화나 급기야 코케인에도 손을 댑니다. 그러던 중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아버지에게 대한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으로 케냐로 떠납니다. 방황하는 오바마에게 가장 결정적으로 희망을 준 것은 케냐에 있는 가족을 방문했을 때 보았던 편지 묶음이었습니다. 다음의 글은 아버지가 미국의 각 대학에 보낸 추천서에 쓰여 있던 글입니다.

“오바마는 조국의 발전에 헌신하겠다는 열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최소한 1년이라도 기회를 주어야 마땅합니다.”

오바마는 이것이 아버지가 자신에게 남긴 유산이라고 생각을 했고 가슴에서 뜨거운 것이 솟구쳐 올라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순간 아버지에게 대한 원망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비록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은 그동안 하지 못했지만 편지 한 통으로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도 남게 됩니다. 문제 많은 아버지였지만 아버지는 아들에게 한 가지 귀한 선물을 남겨 준 것입니다. 아들을 향한 열망이었습니다.

사순절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열망을 새롭게 발견하는 절기입니다. 오바마의 아버지의 열망이 오바마를 변화시켰는데 하물며 우리 주님의 열망은 놀라운 축복의 길로 우리를 몰아 세우지 않을까요?

[2022.3.13 사순절 둘째 주일 설교문에서 발췌]



소중한 위로

김명은 집사

“네 자손이 땅의 티끌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 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땅으로 돌아 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8:14-15)

미국에 온 뒤 처음 다녔던 미국 교회에서 제가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는 동안 남편은 혼자서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며 저의 어려움을 외면하였습니다. 참다 못한 저는 한인교회로 옮기지 않으면 당장 짐싸서 한국으로 돌아가버리겠다고 하니 그제서야 남편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우리 가정은 보스톤 한인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매사에 낙관적이던 남편은 학교만 졸업하면 고생 끝 행복시작 이라고 했는데, 졸업 후 찾은 첫 직장에서 빛의 속도로 해고가 되었고, 저는 그때 남편에 이어 학교를 막 시작하여 한국으로 귀국할 수도 미국에 계속 있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금융위기가 터져서 전세계가 망할 것 같던 그 때, 어린아이 세명을 데리고 이 낯선 보스톤 땅에서 그야말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제게 허락된 일상의 조그만 숨구멍은 주일날 교회에 가서 당시 부부청년부 담당 목사님께 한주간의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부부청년부 멤버들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저와 비슷한 처지의 가정들이 있었고 서로서로 기도제목을 나누고 설교도 듣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2009년 11월 어느 주일, 남편이 교회에서 전화를 통해 한 말에 제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여보 나 부부청년부 회장이 되었어. 함께 뽑힌 부회장이랑 총무가 너무 좋은 분들이라서 별로 힘들지 않을 것 같아”

“당신 정말 미쳤구나. 옆에 목사님 계셔? 나 좀 바꿔줘 봐”

갓 교회를 나온지 1년이 안되어 회장을 하라고 하니 우리는 직장도 불안정하고 저는 풀타임 학생인데 회장을 하라고 하다니 정말 교회가 피도 눈물도 없구나 하는 원망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전화를 통해 부부청년부 담당 목사님께 저는 도저히 회장을 할 수 없고 만에 하나 다음주 주보 광고에 제 이름이 나가는 순간 다른 교회로 옮길 것이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게 했고, 결국 부부청년부는 회장을 다시 뽑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지요.

바로 다음주에 목사님은 저희 집에 심방을 오셨고 그때 가지고 나누어 주신 말씀이 창세기 28장 14-15절 이었습니다. “집사님 밖에 뛰어나는 아이들을 보니 이미 자손의 축복은 주신 것 같고요. 주님께서 집사님 가정을 미국으로 인도하셨으니 함께 하시고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이곳에서 허락하신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시고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 입니다. 현재 여건상 회장은 못하셔도 부부청년부를 위해 찬양부장은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회장직을 받지 못한 저희 가정을 책망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목사님은 저희 가정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여 주셨고, 저희가 스스로를 잘 추스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결국 몇 년 뒤에 저희 가정에 부부청년부 회장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왔고, 그때는 기쁜 마음으로 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에 내가 이곳에 왜 있나 회의가 들때마다 저 말씀을 기억하곤 합니다. 지금은 뉴저지로 가서 사역하시는 그 시절 부부청년부 목사님을 가끔 뵈 볼 때면 그 시절 생각이 나서 눈물샘이 터지기도 합니다. 하루하루가 쌓여서 14년이 흐르고 아이들도 다 커서 대학으로 떠나고 전 아직 여기에 있습니다. 그 때 목사님께 받았던 소중한 위로로 저의 이민 생활이 전환점을 맞이한 것 같이 광야 같은 이곳에서 하루하루 건디시는 모든 분들께 저 성경구절을 전해 드리고 싶네요.

사순절 기간동안 우리를 위해 당하신 주님의 고통에 깊이 동행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광야의 40년 동안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츠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신 것 같이 우리의 광야길을 지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길을 다가기 까지 하나님과 같이 동행 할 수 있기를 원하고 바라웁니다. 아멘

도마를 위한 변명

3/7 (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니이다”
(요한복음 20:26)

어느 목사님이 제게 질문했습니다. 어느 성경편을 가장 좋아하느냐? 대답이 궁했습니다. 대신 베드로를 흠모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현문우답(賢問愚答)이 되었는데 요즈음 저는 도마에 빠져 있습니다.

‘Tom and Judy’. 중학교적 영어 교과서 책이름입니다. 선생님은 탐이라 발음했고, 내 선친은 톰이라 하셨습니다. 성경에선 도마입니다. 안중근의사 세례명이기도 합니다.

도마가 투정했습니다. ‘그의 손의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요 20:25). 주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훌륭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게 도마의 의심은 정당합니다.

아직 초신자일 적입니다. 마침 그해 겨울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봄이 오긴 오는건가 의심스러울 정도였고요. 이윽고 봄날이 닥쳤습니다. 잔설은 걷혔고, 새싹들이 올라설 듯 하던 날이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었습니다. 차창밖 풍경이 그날따라 내 눈에 새로웠고 산모퉁이를 돌아 나른 평원길에 다달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울컥해졌고 나도 모르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세계 ~~’ 가 입밖으로 흘러 나왔습니다. 옆자리에 앉았던 아내가 얼핏 돌아 보았고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날 그시각, 내눈에 비친 자연의 변화가 정녕 오묘했던 겁니다. 이야기를 들은 선배가 말하더군요. 때가 이르렀으며 성령이 임했노라고 말입니다. 내 첫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도마는 회계책임자라 들었습니다. 회계는 꼼꼼해야 할테고, 한 점 의심없이 투명해야 할 겁니다. 저 역시 눈이 맑아졌고, 밝고 투명해지는 걸 스스로 느꼈습니다. 도마와 같은 경험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여, 깨워주소서. 그리고 더 가까이 갈수있도록 힘껏 당겨주소서. 놓치지 않도록 힘을 주소서. 아멘

십 년째 보스톤 한인교회에 갑니다

정유미 집사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시편 105:1)

십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무엇이든 십 년만 해도 전문가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다.

그러나 나는 십 년 동안 강산이 변할 만큼의 무언가가 되지는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70주년이라는 단어가 귀에 걸렸다. ‘우리 교회가 70주년? 벌써 십년?’ 라고 되뇌어지면서 자연스럽게 60주년이 그려졌다.

십년 전, 나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2013년을 더듬어본다. 몇개월 간의 서울 살이를 마치고 보스톤으로 복귀를 앞두고 전화기에서 남편의 활기찬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나 요즘에 바빠. 교회가 60주년이 되었는데 내가 해야할 일이 생겼어. 보스톤에 오면 보여줄게.” ‘보여준다고? 뭐?’ 남편이 혼자 있어 외롭지는 않을까하는 걱정이 슬그머니 사라진 자리에는 호기심이 채워졌다. 2013년 가을, 보스톤행 비행기에 오르는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둘이었다.

“교회에 가면 볼 수 있어!” 보여줄 것이 뭐냐고 물어보는 나에게 돌아온 대답이다. 토요일에 함께 교회에 갔다. 교회 사무실은 유난히 분주해 보였다. 사무실을 지나서 예배실로 들어갔다. “음, 저걸 봐!” 남편이 속삭였다. 내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다. “내가 디자인을 했어!” 그림으로 먹고 사는 핏줄이 없는 내가 봐도 멋있어 보였다. 그런데 그 보다 즐거워보이는 남편의 모습이 더 강하게 남는다. 이런 속내는 아껴두고 “수고했네. 통통이(태명)가 아빠를 자랑스러워 하겠어!” 라고 대답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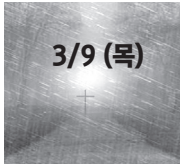
‘나이는 숫자가 아니다’ 라고 했던가. 나이는 결코 숫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 어떻게 무엇을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나이를 먹으면서 위안하는 말이라 여겼다.

각설하고, 우리는 교회의 나이에 숫자에 얼마만큼의 의미를 부여해야할까? 너무 떠들썩하면 요란하다. 너무 조용하면 허전하고 웬지 교회에게 미안해진다. 그러다 60주년을 떠올리면 환한 남편의 얼굴이 먼저 생각난다. 눈부신 비주얼은 아니지만, 빛나 보였던 그는, 내가 태어나서 교회로 전도한 유일한 사람이다. 그렇지만 모태 신앙인 나보다 ‘섬김’에서는 웃길이다. 이따금 남편이 곱지 않게 보일 때면 (한국에는 ‘영끌’이라는 신조어가 있다. 영혼까지 끌어모았다는 뜻) 나는 아껴두었던 속내를 끌어모아 본다. ‘속끌’해서 부부싸움을 덮을 수 있어 감사하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빛이 나는 순간이 있다. 그 순간이 예수님을 따라 섬기고 봉사하는 동안이면 좋겠다.

십년, 무언가가 되지 못했지만, 돌아보면 감사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섬기고 봉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주시는 기쁨과 감사
가 그 안에 넘쳐 주님께 영광을 돌리길 기도합니다. 아멘



광야를 지나며

최현구 장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 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2-3)

2020년에 부쩍 많이 접했던 단어가 ‘전례없는 (unprecedented)’이 아니었나 싶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이 무너지고, 말 그대로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며 지내온 지 벌써 2년이 되었다. 역설적이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 나의 삶과 신앙을 되돌아 볼 기회를 허락하셨다.

작년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몸과 마음이 안 좋아졌던 때가 있었다. 처음에는 내 스스로 극복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아내에게도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교회에서 가깝게 지내던 교우들이나 함께 찬양팀으로 섬기는 팀원들에게도 ‘이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정도의 믿음과 힘이 내게 있어’라고 말하는 듯한 가면으로 나를 가리고 지냈다. 하지만 감추는 것도 한계가 있는 법... 마침내 바닥이 드러났고, 더 이상 내 힘으로 버틸 수 없는 ‘나’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 때부터 아내를 통해 그리고 가까이 지내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너는 왜 여태껏 나한테 얘기하지 않았니?” 다른 이들에게는 모든 상황속에서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해야 한다고 입바른 소리를 했었지만, 정작 그 때의 내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절실하지 않았던 나를 발견하게 된 것이다.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던 나의 모습이 드러났다. 죄스러웠다. 그리고 부끄러웠다.

교회에서 섬기던 찬양팀도 잠깐 내려놓고, 회사에도 병가를 냈다. 휴식을 취하면서 나를 바라보게 되었다. “용서해주세요! 그리고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다. 정말 주님밖에는 내가 의지할 분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말 그대로 광야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었다. 나는 자격도 실력도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에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다시 확인하는 축복의 시간이었다.

구약학을 전공한 김병하 박사는 자신의 컬럼에서 ‘광야’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미드바르’(מִדְבָּר)에는 ‘말씀’을 뜻하는 ‘다바르’(דָּבָר)라는 단어가 들어있다고 설명한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의지할 것도 없는 거칠고 위험한 광야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라는 뜻이 ‘광야’라는 히브리어 ‘미드바르’(מִדְבָּר)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다.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만이라는 거품이 가득한 ‘내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마음’이다. 아직도 내 자아가, 교만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면 하나님께서는 이 찬양을 내 마음에 울려주신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
 내 자아가 산산히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CCM그룹 HisWill ‘광야를 지나며’]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손을 꼭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생각하며

3/10 (금)

“주께서 내가 앓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니오며”
(시편 139:2)

벌써 보스톤땅을 떠나 덴버로 온지도 한달이 되어옵니다. 떠날때는 새로운 땅을 향하여 가슴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땅을 밟았습니다. 새로운 교회 새로운 성도님들, 새로운 타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주님이 보내시면 씩씩하게 달려가겠다고 다짐하고 왔습니다. 현실은 내게 아직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 미국에 왔던 30년전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많이 낯선 땅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익숙한 생활을 접고 미국에서 처음 적응하며 한국 돈과 미국 돈의 가치를 비교하며 어리둥절했던 그시간들...

지금 이곳에서도 한인마트를 가던 미국마켓을 가도 온통 보스턴과의 생활을 비교하며 낯선 땅에서 한발한발 힘겹게 내딛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일찍 눈이 떠지고 저녁에는 늦게까지 잠이 안오는 시차의 적응속에 두고온 두 자녀를 생각도 나곤합니다. 말로는 씩씩한것 같아 보이는 딸아이의 음성속에 짝한 마음이 올라오고 다정한 막내 아들의 안부전화에도 주님이 생각납니다.

주님도 이런마음 이셨겠지... 사랑하는 이들을 멀리두고 높은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곳에 오신분은 누구를 위함이였을까요?

나! 바로 나 때문에 버리신 희생은 뒤로한 채 나는 늘 주님께 구하고 바라는 기도뿐인 나의 모습에 조금씩 입술을 달아버립니다. 나의 앓고 일어섬을 아시는 주님, 나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이시간 내려 놓습니다. 이제 기도의 순서를 바꾸어보렵니다. ‘주님이 이것 해주시면 내가 이거 할게요’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한결음씩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전에는 그랬습니다. 글쓰기를 좋아해서 가끔씩은 글을 미리 써놓고 있기도 했다가 읽어보기도 하고 혼자 생각해보는 시간이 많았었는데 여기에 오니 온통 머리 속도 하얗고 산도 하얗습니다. 다행히 전날 내린 눈은 다음날 뜨거운 태양아래 물이되어 수증기가 되어 날라가 버리는데 저의 하얀머리는 목상집글을 쓴다고 해놓고는 하얗게 된머리가 좀처럼 태양이 뜨지 않아 멍청하게 주님만 기다리다 이제서야 써내려 갑니다. 그래도 내 머리 하얗게 되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함없습니다. 그냥 이모습 이대로 주님께 내어놓으며 더 용감하고 더 인내하고 자랑스러운 주님의 자녀로 살게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가신 그길을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가고 있는이길이 그길과 만나게 하소서 주님앞에 부끄럽지 않는 자녀의 길을 살아내는 순례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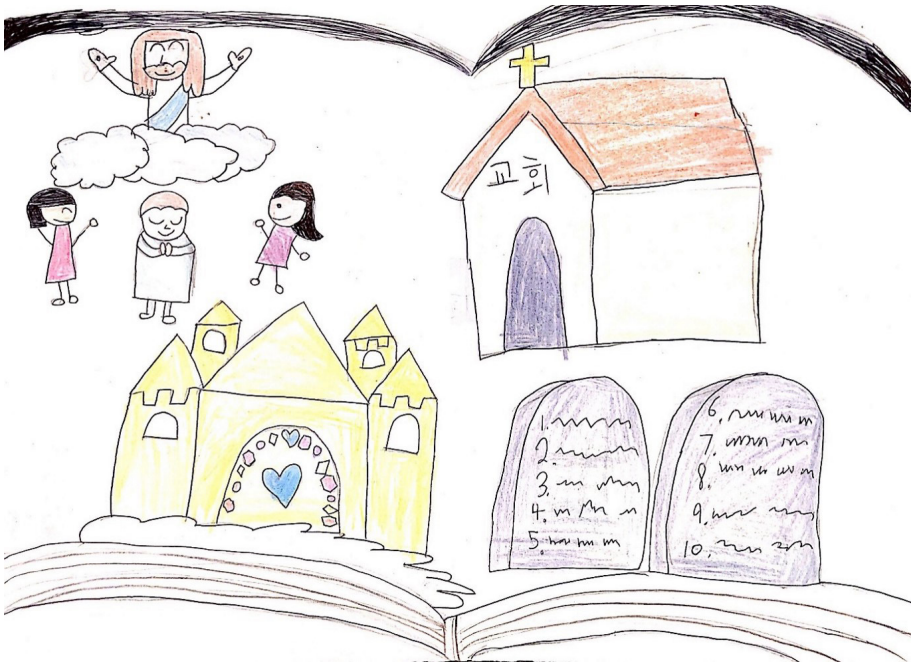
내가 생각하는 크리스찬

차지안 어린이 (초등4학년, 9세)

3/11 (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5)

내가 생각하는 크리스찬은.. 늘 말씀을 읽어요. 기쁜 마음으로 찬양과 기도를 해요. 주일에 교회에 가요. 십계명을 지켜요. 그러면 모두 다 천국에 가요.



보스턴에서 좋은 경험과 추억 많이 만들게 해주세요. 아멘



3/12

(사순절 셋째주일)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고 사는 자들

윤경문 목사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고린도전서 2:2)

사도바울께서 고린도교회에 복음을 전해주시던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고린도의 화려한 문화 속에 풍요를 누리며, 당시 희랍 문화 아래 다양한 종교적 관습과 철학을 쫓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이들이 더 관심을 갖지게 된 것들은 무엇이이었을까요? 자신들의 삶에 만족과 번영, 풍요를 더 채워줄 것들이 아니었을까요? 화려한 언술로 자신들의 지식을 만족 시켜주는 자를 찾으셨어요.

고린도교회 안에도 이러한 사조들이 흘러 들어와 분쟁과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교인들이 다시 복음의 본질을 되찾기를 호소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사도바울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바로 복음의 진리임을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낯설고, 생소한, 아니 피하고 싶은 주제였습니다. 일반인들에 눈에 십자가는 연약함, 비참함, 그리고 어리석은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바울께서는 그런 ‘십자가’로 인해 그들이 비로서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일깨우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한없이 연약해 지셨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있음을 확신하시면서요. 믿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연약함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고, 어떤 상황가운데서도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곳임을 알려주십니다.

구 소련의 체제에 항거했던 작가 솔제니친은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만났습니다. 강제 노동에 시달리며 배고픔으로 가장 힘들고 절망했던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던 바로 그때에 한 노인이 그의 옆에 다가와 소리없이 땅에 십자가를 그리는 것을 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한 순간, 그는 바로, 십자가에 인간의 소망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십자가 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에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순간 그에게 다시 살아갈 희망과 능력이 주어졌고, 후에 그는 세상의 죄악에 맞서서 저항하며, 진실을 소리칠 수 있는 멋진 문화가 되어갔습니다. 절망 가운데 만났던 십자가가 그를 살렸고, 그에게 희망을 보게 했고, 그래서 세상을 향한 소명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게 한 것이 아닐까요?

오늘 차고 넘치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잃어가고 있던 것은 우리 자신을 온갖 죄악과 죽음의 세력에서 건져내어 구원하여 주시려고 지셨던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아닐까요? 오늘 다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사순절의 하루를 만나십시오. 그때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가장 연약해지셨던 주님, 십자가의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다시 우리를 채워주소서, 아멘

예배에 늦지 않으려고

고경아 권사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시편 78:40)

광야의 바람이 반항하였으나
그를 슬프시게 하지 않으려 서두릅니다.

십자가에 돌아오르는
회개와 기도, 절제와 금식, 경건한 삶

푹 죄질 도려낸 곳에
튼실한 새 고백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세상 사이에 많지 않을 거라고
숨어 있어도 이제는 보일 것 같은

그의 아름다움을 배웁니다.

어제처럼
설명이 길어 어지러웠던 저 낯선 웃음들이 사라집니다.

예배드리게 하소서

찬란한 부활에 고두하며
승리의 찬가를 부르게 도와소서

예배에 늦지 말게 하소서
부디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나에게 고난이 주는 의미는...

3/14 (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 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2-4)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는다. 그럴 때마다 힘들어 하며 견디고, 버티며 그 속을 관통해 나가면서 마침내 끝이 보이면 기뻐하고 감사한다. 하지만 그 고통의 시간이 주는 결과가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감사하며 받아드리게 하신다. 여기서 그치면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머물게 되지만 하나님은 나를 거기에만 머물게 하시지 않으시고 나의 자유의지로 한 걸음 더 내딛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을 믿는 나, 성도인 나는 고난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고 말씀 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고민하는 시간이 많이 있었다. 그것도 순간이라는 기점으로 완전히 다른 상황으로 나를 몰아넣는 그런 어려운 상태로 빠지게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었고 내 주위에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좋은 사람들이 나를 돕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고통의 시간은 혼자 힘으로 헤쳐 갈 수 없음을 알게하시고, 하나님안에 거 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는 일상의 생활에서 배우게 하신다. 먼저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시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알고 실천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또 도움을 주고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삶의 기쁨을 되찾게 하신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위로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신다. 결코 나의 의지와 결단으로가 아니라,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체험하는 것으로 말미암는다.

그런 후에는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 남다른 애뜻한 마음이 생기고 그들을 돌보게 하신다. 이로 인하여 그들에게는 위로를 나에게는 치유를 주신다. 예수님께서도 인간들의 고통을 체험하시어 우리들의 고통을 더 잘 아시고 우리를 치료하고 치유해주셨음을 더욱 잘 이해하고 알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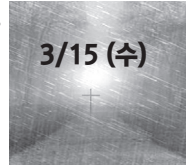
성경에는 우리의 지식과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고,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와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이야기중에, 말도 안되는 상황에도 개의치 않고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있었던 성경속 인물들중 닮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아브라함은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 사흘 길을 걸으며 온갖 생각을 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한 산에 까지 오를 수 있게 하였고, 아들 이삭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이해 할 수 없는 부모의 결정에 순종하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 주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이유를 묻지않는 이삭의 부모에 대한 순종이다.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었던 나에게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순종이 나에게 일어난 일을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으로 받아드리고, 삶에서 낙오하지 않고 어려움을 이기고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도구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게 하였다.

주님,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늘 말씀안에 거 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나’의 경계 - 下

안성민 교우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시편 95:6)

‘나’라는 사람의 경계는 어디 있을까요?

실수(實數)를 대할 때, ‘한 숫자’라는 개념이라고 생각 하는 것 보다 그 숫자의 경계를 고려하는 게 더 이로울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1’을 1이라는 숫자로 대하는 것이 아닌, ‘1보다 작은 숫자들보다 크며 (하한,), 동시에 1보다 큰 숫자들보다 작은 (상한, 上限)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예로, 이러면 1이라는 숫자는 2분의 1의 n승이란 무한 수열의 합이란 걸 납득하기 더 쉽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쓸데없을 수도 있고, 거의 만인에게 어지러운 이 사고방식은 수학을 넘어 조금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를 정의할 때, 그 경계는 어디 있는 걸까요?

제일 쉬워 보이는 시간의 경계도 불분명합니다. 생명의 시작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정도이며 (고로 가볍게 넘어갑시다),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끝, 곧 죽음도, 의학적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안됐습니다. 넘어서, 작가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두 가지 죽음을 제안했습니다 - 땅에 묻힐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름이 불릴 때. 게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을 믿기에 (고전 15), ‘죽음’이라는 경계도 애매모호해집니다.

그럼 공간의 경계는 분명할까요? 원자도 양성자, 중성자, 그리고 전자로 나뉘어지고, 그 중 하나만 고르면 원자라고 부를 수 없는데, 우리는 원자를 넘어 세포, 조직, 장기 등으로 소단위로 나뉘어질 수도 있습니다. ‘나’의 세포를 ‘나’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럼 장기는 어떨까요? 더 크게, ‘나’의 머리만 가리키며 이것이 ‘나’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나’의 하한은 어디일까요?

제 생각엔, 세포도 아닌, 장기도 아닌, ‘나’의 하한은 ‘나’ 그 자체 인 것 같습니다. 참 신비한 것 같습니다 - ‘나’는 ‘나’로 부를 수 없는 것들로 만들어졌다는 점이...

‘나’를 이루는 먼지들 (창 3:19) 하나 하나가 다 우리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한 땀 한 땀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나’를 정교하게 지으셨는데, 그러므로 이 ‘나’로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있나 생각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더 알아갈 수록 경이로울 뿐입니다. 이 모든 것, 우리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 것인 걸 인정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친정 엄마의 10주기에, 엄마를 추모하며...

이성혜 사모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8)

2022년 10월은, 제가 무척 사랑하며, 또 저의 신앙의 멘토이셨던(조언자) 엄마가 주님의 나라로 가신지 10주기가 되는 달이었습니다. 평양이 고향이신 엄마는 무남 독녀로써, 일찌기 홀로 되신 외할머니와 함께 경제적으로 힘들게 사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엄마는 외할머니와 함께 평양 장대현 교회에 다니시면서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6.25가 일어나던 해에 엄마와 외할머니는 남한으로 피난을 내려 가셨는데, 그때도 역시 경제적으로 그닥 넉넉치 못하셨기에, 대학 생활을 일부 장학금과 기숙사 사감 생활을 하시면서, 힘겹게 마치셨습니다.

졸업 후에는 미국 Peace Corps 에서(평화 사절단) 한국을 돕기 위해 나오신 어느 여자 교수님을 위해서 통역을 하시다가, 그분이 가르치시는 대학에 장학생으로 유학을 가셨습니다... 아빠와 함께... 6년간의 유학 생활을 마치시고 귀국하시고는, 엄마의 모교에서 가르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가난했던 한국과는 비교도 안되게 부강하고 발전된 미국에서 6년간 유학 생활을 하시면서, 엄마는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되셔서, 귀국을 하신후에는 그냥 Sunday Christian 으로, 간혹가다 주일 예배도 쉽게 빠지시면서 지내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제가 5학년때였는데, 저희 온가족이 다니던 감리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엄마를 주일학교 교장 선생님이로 임명하셨고, 엄마가 가끔은 어린이를 위한 설교도 하셨어야 했기때문에, 성경을 안 읽으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어린이 설교를 준비하시느라 로마서 5:8 절을(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읽으시던 중에 뜨겁게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후로 엄마가 얼마나 많이 변하셨던지, 그 많던 신경질도 거의 다 없어지고,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전도해야겠다는 열정으로 가득차셔서, 제자들, 친구분들, 친척분들...등 만나는 누구에게거나 때를 얻든지 못얻든지 전도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모든 믿는 이들에게는 각자의 은사가 다르다고 성경에 써어있는데(롬 12:6), 주님께서는 우리 엄마의 솔직하고 용감한 성격을 사용하시어 전도의 은사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엄마는 상대방이 막 싫어해도 끈질기게 전도를 하셔서, 많은 지인들을 전도하셨고, 가르치시던 대학에서는,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교수 성경 공부반’ 을 시작하셨습니다. 또한 매주 금요일에는 저희 집을 open 하셔서, 누구든지 원하는 학생들이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귀한 목사님들을 모시기도 하셨습니다.

엄마가 처음에 전도할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엄마를 미워하면서, ‘촌스러운 전도 교수’라고 부르다가, 나중에 구원을 받은 후에는 엄마를 너무나도 좋아하고, 고마워하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큰 은혜를 받으신 이후로, 우리 삼남매는 엄마를 놀리곤 했습니다... “엄마가 변하신걸 보면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셔...” 라고요... 특히나 그 많던 신경질 대신에, 하루를 성경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시면서, 기쁨과 평강가운데 사시게 되신 모습을 보면서, 저희 삼남매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에 탄복했습니다...

엄마가 82세때 암에 걸리셔서, 의사로부터 한 두 달밖에 더 못사실꺼라는 통보를 받으셨을 때, 제 남동생이 막 우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기뻐하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들과 함께 사는 것도 좋지만, 주님의 나라에 가서 그리운 주 하나님과 너네들 아빠를 만나는 것도 너무 좋아...”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엄마가 주님의 나라로 가신지도 벌써 1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엄마가 그립습니다. 허나, 이후에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 모두 재회하여,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살 생각을 하면, 오늘도 새 소망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해주시기 위하여,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 크나큰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지금도 저의 신앙의 멘토이셨던 엄마의 말씀이 귀에 생생합니다...

“성혜야, 무슨 일을 당하든지,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면서 기도하렴... 그러면, 정말로 도와주신단다...”

주님, 사랑하는 분들과 모두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 날까지, 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기회

3/17 (금)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전도서 11:4)

아들의 방 문을 열기가 두렵다. 그 방 문 안에는 태풍이라도 지나간 것처럼 양말과 옷들이 여기 저기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기 때문이다. 발을 디딜 곳이 없어서 징검다리를 건너 가듯이 걸어야 할 정도다. 좀 치우라고 말하면 항상 대답은 “응 내일 할게 엄마”, 계절이 지난 물 호스를 남편에게 치워달라고 하면 “오늘은 추운데 주말에 하지”, 또 사람들에게서 자주 듣는 “오늘은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해야지”, “신년 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해야지” 이 모든 대답에서 두개의 공통점이 보인다.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작정과 ‘나중’ 이라는 시간이다. 만사는 다 때가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지금은 아니라고들 말한다. 미루는 데에 길들여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들을 잃고 말 것이다. 나의 경험으로 볼 때에 무엇인가를 미루었을 때 그 다음엔 그것을 할 의도가 약해져서 심드렁해지기가 십상이었다. 그리고 내가 미루었던 내일이라는 시간으로 달려가 보면 늘 그 내일은 또 다른 내일을 향해서 이미 떠나 버리지 않았던가? 그래서 주님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일을 미루고 녹장을 부릴만큼 길지 않다는 것과 미루지 않을 만큼 완벽한 여건은 절대로 없다는 것을 자주 생각나게 하셨다.

사소한 장애들을 핑계삼아 일을 하지 않거나 미루지 못하도록 ‘기회’에 관한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한다.

여호수아 2장에서 이방여인이면서 기생인 라합은 자신과 자기의 온 가정을 구원할 기회가 찾아왔을때 놓치지 않았다. 라합이 그런 기회를 붙잡는다는 것은 전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정탐꾼을 숨겨주거나 도와 주면 반역죄로 죽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용기있는 여인이었다. 그녀는 이미 이스라엘의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소문으로 듣고 알고 있었기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상천하지에 하나님이니라”라고 고백하며 그위험한 기회를 용기있게 붙잡을 수 있었다. 결국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천하게 여기는 이방인과 기생의 신분으로 예수님의 선조로 믿음의 계보에 당당히 오르게 되었다.

기회를 너무나 잘 표현한 또 다른 글이 있다.

[희랍의 시라큐스 거리에 기회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동상 하나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동상은 날개가 발에 달려있고 앞머리는 무성하고 뒷머리는 대머리인 동상입니다. 그 동상 아래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누가 그대를 만들었는가? 리스퍼스,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기회, 왜 그대의 날개는 발에 달려 있는가? 걸어 가기보다 더 잼사게 빨리 달리기 위해서, 왜 그대의 앞머리는 그렇게 무성한가? 내가 올 때 사람들이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왜 그대의 뒷머리는 대머리인가?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붙들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용서하고 용서 받을 수 있는 기회,

지금 무릎 꿇을 수 있는 기회,

지금 찻 길 옆에서 기웃거리는 다른 차에게 양보할 기회,

지금 입을 다물어야 할 기회,

바로 지금 내가 참아야 할 기회,

지금 은혜의 말씀을 읽어야 할 기회...

하찮은 일 때문에 하나님과의 크고 위대한 만남을 절때 미루지 않아야 한다. 그 만남이 주는 영혼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면 하찮은 일들에 마음을 빼앗긴 시간들이 말할 수 없이 후회스러워질 것 같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나의 마음 속에 친히 말씀하신다.

“딸아, 지금 그리고 ‘오늘’ 이라고 부르는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나의 힘이 되신 나의 아버지, 세상 헛된 것들로 오늘을 낭비하지 않고 영원한 하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않는 오늘이 되게 하여주소서. 아멘



평강의 십자가

윤원길 장로

3/18 (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4:1)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14절에서 “그러나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박히고 내가 또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하였다.

복음 외에는 이세상에 소망이 없다. 복음의 진수는 십자가에 대한 멧세지 이다.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십자가만이 모든 족속들을 연합할 수 있고 온 세상에 참된 평화를 심어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세상은 언제나 사탄의 세상”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투쟁과 다툼, 적대감, 증오 등은 세상에 항상 있고, 또한 우리 각자의 내면적 문제들임으로 개인적 삶의 관점에서 다루어 본다. 한 가정내에서도 분열이 일어난다. 오해가 발생하며 싸움과 의견 충돌이 일어난다. 여기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에베소서 2장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을 허신 것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었다.

그러면 분열, 불행의 원인이 어디있는가? 그 원인은 중생하지 못한 인간의 속성, 즉 육적인 교만이다. 교만의 원인은 무엇인가? 무슨 출신 혹은 혈통인가를 자랑함으로 교만이 짝땀다. 지식의 교만도있다. 고대의 헬라인과 야만인같이. 인간이 교육을 잘 받았다고 해서 평화스러운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 문제의 발단은 늘 감정에서 시작되어 욕심이 생기며, 갈망하며, 교만이 자란다.

분단된 모든 사람들을 하나 되게하며, 참된 평화가 수립되게 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이일을 십자가에서 어떻게 수행하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자가 온것은 잃어버린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눅19:10). 바울도 예수님의 존귀하신 모습을 한 번 바라보는 순간 그는 철저히 낮아져 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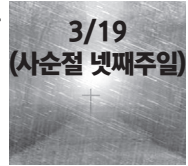
십자가는 남에 대해서도 깨닫게 해준다. 십자가 앞에서 강자나 약자나 모두 같은 인간임을 깨닫게 해준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며 소망도 없는 무기력한 존재이다. 인간을 똑같은 처지로 이끄는 것은 그 십자가 뿐이다. 모든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인인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다.

자신에 대해 생각해보자. 우리의 미움과 증오가 분열을 조장 하지 않는가? 이런 사실을 이야기 해주는 것은 십자가 뿐이다. 십자가가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자! (이글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집 “십자가”에서 발췌하였다)

우리에게 구원과 평강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아멘

공홀히 여기는 자는

이영길 목사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공홀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공홀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미태복음 5:1-7)

사순절은 조건 없는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조건없는 사랑의 궁극적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우리 기독교 진리에 가장 중요한 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조건 없는 사랑을 받으려면 먼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전혀 가능하지 않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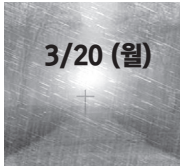
사실 조건 없는 사랑은 받기는 쉬워도 베푸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건 없는 사랑은 베풀지는 않고 받는 것으로 스톱되어 있는 우리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국 아주 이상한 인격이 되어 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조건 없는 사랑을 구하고 남에게는 조건 있는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곧 괴물 인격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중략)

주님께서는 언젠가 공생애를 마치면서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완성하실텐데,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무조건적인 사랑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님을 산상수훈을 통해 먼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중략) 요즘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모습을 늘 동영상으로 대하게 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자선 기금도 모금을 하고 이를 위해 자선음악회도 엽니다. 이는 모두 땅 끝에서 있는 난민들을 위한 땅이 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땅끝에 선 자들을 염두에 두고 유대인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엘리 비젤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고난 앞에서 모른 채 돌아설 권리는 없다. 불의 앞에서 사람들은 짐짓 다른 곳을 바라본다. 그러나 누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우선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신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다. 고난이 그에게 우선권을 준다.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 지금 슬퍼하는 사람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일보다 더 시급한 의무이다.” 특별히 우리나라처럼 6.25를 겪은 우리들은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사항 같습니다. (중략)

땅 끝에서 있는 자들을 위해 땅이 되어주는 삶을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그대 하고 싶은 것을 행하라! 입을 다물려거든 사랑으로 침묵하라. 말을 하려거든 사랑으로 말하라. 남을 바로잡아 주려거든 사랑으로 바로잡아 주라. 용서하려거든 사랑으로 용서하라. 그대 마음 저 깊숙한 곳에 사랑의 뿌리가 드리우게 하라. 이 뿌리에서는 선 외에 무엇이 나올 수 없거니...”

[2022/3/27 사순절 넷째주일 설교문에서 발췌]



믿는 구석이 있다

강문일 교우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 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누가복음 15:20-24)

벌써 20년도 더 지난 일이다. 고등학교 3학년 겨울, 일찌감치 수시 전형을 통과한 나는 수능 백분위로 10% 안에만 들어가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었다. 컨디션 조절만 잘해서 평소대로 시험을 치르면 무난히 합격하는 상황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주변 사람들 모두가 합격을 당연시하는 그 상황이 하필 수능 날 시험을 망치면 어쩌나 하는 내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얽힌 데 뺏친 격으로 수능을 한 달도 채 남기지 않고 치른 모의고사 수리영역에서 꽤나 까다로운 문제를 만났고, 그 한 문제에 매달리느라 마지막 몇 문제는 손도 못 댄 채 시험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수험생들이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출제자가 일부러 어렵게 꼬아서 만든 문제였지만, 수능 당일에도 이런 문제를 만나 시험을 망칠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힌 나에게서는 역효과일 뿐이었다. 싱숭생숭한 마음에, 함께 시험을 본 친구에게 수능 날 이렇게 꼬인 문제를 만나면 어쩌냐고 묻자 친구는 “너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깐 괜찮아”라고 말하며 적어도 나한테 수능은 1, 2점 차이로 당락을 결정하는 시험이 아니니까 까다롭거나 마음에 안 드는 문제를 만나면 좋아하는 숫자로 찍고 넘어가라고 조언해 주었다. 물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 말이었지만, 친구의 조언 덕분에 나는 편안한 마음으로 남은 수험 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믿는 구석이 있을 때 우리는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다른 이들의 시선 앞에 당당할 수 있으며, 때로는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더 내딛을 용기를 얻는다. 믿는 구석이 있기에 아브람은 롯에게 여호와의 동산 같은 요단 지역을 양보하고 헤브론으로 향했으며, 믿는 구석이 있기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의 거인들을 보는 대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을 볼 수 있었다. 믿는 구석이 있기에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 그를 몇 번이고 놓아주었으며, 믿는 구석이 있기에 다니엘은 기도함으로 사자 굴에 들어갔다가 살아 나올 수 있었다. 믿는 구석이 있기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물위를 걸었으며, 믿는 구석이 있기에 마르다는 죽은 나사로 곁에서 절망하는 대신 예수님께로 나

아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고백할 수 있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신앙의 선배들의 역사는 결국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들의 역사가 아닌가? 물론 살다 보면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힐 때도 있지만, 믿는 구석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발걸음에는 힘이 실리기 마련이다.

코로나가 창궐한 해 이후로, 아니 어쩌면 그 이전부터 어중간한 신앙생활을 해 온 나는 나아말로 제대로 된 탕자가 아닌가 자문할 때가 많다. 그러나 이 신앙인의 탈을 쓴 탕자에게도 믿는 구석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고난을 당하심으로 내가 이미 구원받았다는 사실이다. 나 또한 인간인지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이후에도 크고 작은 죄를 범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오직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내 행위로 되돌릴 수는 없다. 버젓이 살아 계신 아버지께 유산을 가불한 것으로도 모자라 그 모두를 탕진한 둘째 아들, 그런 아들조차 측은한 마음으로 기쁘게 다시 품어주시는 아버지께서 설마 나를 문전에서 박대하시겠는가? 언제든지 돌아가기만 하면 그 누구보다 나를 기쁘게 맞이해 주실 아버지, 그러나 이 불신앙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아버지께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은 온전히 나의 몫이다. 둘째 아들이 삶의 나락에서 아버지를 기억하고, 그 모든 염치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이 그를 구원케 했듯이, 세속에 절어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스스로에게 탕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을 때 나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를 기억하는 지혜와 그 분께로 염치없이 나아가는 용기일 것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탕자와 같은 저를 의롭다 여기시며 아버지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면서도 뒤돌아서면 다시 죄에 빠질 수 밖에 없는 저의 나약함을 주님 아시오니, 제게 아버지를 기억하는 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께로 염치없이 나아가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3/21 (화)

우리에게 필요한것

차예나 어린이 (초등1학년, 6세)

“주의 말씀은 내발의 등이요 내길에 빛이니다” (시편 119: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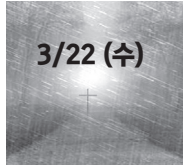
그림내용: 물고기한테 꼭 물이 필요하듯이 우리에게겐 성경과 예수님이 필요해요.



같은반에 친구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아멘

구약의 여성들과 신약의 여성들

김현지 권사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향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요한복음 2:7-9)

구약 성경에는 소위 말하는 현모양처의 훌륭한 여성들이 줄줄 나온다..

1. 요게벳: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명을 받아 모세와 형 아론과 더불어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철저한 믿음의 교육을 받고, 생명을 걸고 민족을 구해냄.
2. 룻: 다윗 왕의 증조할미로서 젊어서 시아버지와 남편, 그 형제들이 다 죽고, 홀로 외지에 남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보살피고 존중하고 사랑한 아름다운 애정으로 증손이 다윗 왕이요, 이후 솔로몬 왕까지 줄줄이 나온 놀라운 축복을 받은 효부.
3.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얼마나 했던지, 제사장이 보고선 술에 취해서 자면서까지 중얼거리는 줄 알고 깨울 정도로 쉬지 않고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사무엘을 낳게 해 주신 기도의 왕이었다.
4. 에스다: 바벨론에 잡혀간 유다 사람, 모르드개의 양녀로 유다인임을 숨기고 아하수어로 왕의 왕후가 됨. 후에 유다에서 잡아온 백성이 다 죽게 될 때 에스다가 왕에게 간청하여, 유다 민족을 죽이기로 한 하만을 오히려 죽이고 유다 족속을 다 살림.

이 외에도 많은 훌륭한 여인들이 있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나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 시대의 여인은 셈 수에도 들지 못하는 ‘여인천대’ 받는 시대였다. 예를 들면 간음죄나 살인죄를 지으면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지만 남자는 벌 받는 일이 없었다.

신약에 나오는 여인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면서는 첫 이적부터 물로 향기나는 아름다운 포도주로 만드신 이적대로,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믿음으로 하늘나라 백성으로, 빛 된 삶을 살게 하셨다. “사랑하라”를 제일 된 계명으로 주시고, 세상 죄가 물 만큼이나 많은 죄인들을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라 하시며 셀 수 없이 많은 여러 여인들을 구하여 주셨다. 그 누구보다도 먼저 떠오르는 막달라 마리아.

5. 막달라 마리아: 부모 없이 오빠 나사로와 언니 마르다와 셋이 살았다. 오빠 나사로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요, 언니 마르다는 소위 말하는 현모양처형의, 살림도 규모, 질서 있게 건실하게 사는 여인인데, 막내 막달라 마리아는 정열적이고, 강한 사람들이 평하기를 “칠악이 든 여자”요, 오빠와 언니의 말에 반항하여 집을 나가 사람들의 뒷손가락질을 받는 창녀로, 밤의 여인으로 지내다가 오빠와 언니가 예수님께 말하여 알게 됨으로, 예수님께서 특별히 불쌍하게 생각한 데 대하여 감사하여 울면서 눈물을 흘려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예수님의 말씀할 적에 곁에서 정신없이 만사를 제쳐 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삶이 바뀌어 주님을 존경, 사랑하며 따라 새사람이 되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만에 부활하셨을 때, 제일 먼저, 누구보다도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하고 부르시는 역사적인 놀라운 영광을 입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한 여인.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도 그리하도록 원합니다. 아멘



명예로운 하나님 백성들의 삶

정광근 장로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신명기 26:19)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시작된 전쟁이 1 년이 다 되어 갑니다. 많은 이들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비교한 이 전쟁에서 세계 최강대국 중 하나였던 러시아는 부끄러움과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2 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군을 몰아 냈던 러시아 군은 모든 이들의 예상과 달리 나약함과 오합지졸한 모습들로 전세계인들이 러시아를 한심하게 바라보는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정복을 차려 입은 군인들은 책임감 있게 그 정복에 걸맞는 행동과 말을 해야 함을 압니다.

이처럼 우리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성민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할 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명예와 사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 삶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을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조롱 받고 있고 구별됨 없이 무능하게 세상의 악에 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 참담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엔 “창조주가 어디 있나? 우리는 원숭이의 후손임을 믿고 살겠다!” 라고 소리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혹 이 외침의 이유가 “저런 탐욕과 위선으로 가득 찬 그리스도인이 되기보단 차라리 원숭이 후손이 되겠다!”는 아닌지 두려운 마음으로 제 자신에게 질문해 봅니다.

우리는 창세기 1 장을 진실로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정한 천국 백성이란 뜻이죠. 그런 우리가 정말 잘 훈련 받은 정예부대처럼 멋지게 구별되어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별된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이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금금해 할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이 말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받고 명예스러우며 많은 이들에게 존귀함을 받는 백성들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가슴 떨리는 약속의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기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온통 죄로 얼룩진 인생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죄를 사함 받기 전에는 당연히 그 약속의 백성들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 지시고 십자가 어린 양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어떤 세상 제복보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제 창조주 하나님의 성민이 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한 나라의 백성이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성민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즉 말과 행동 심지어 아무도 보지 않는 생각까지도 우리 하나님 나라의 자랑이 되기도 하고 조롱이 되기도 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명예를 지켜가는 삶이 그래서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우리 주님의 제자로서 다시한번 옷 매무새를 다듬듯 삶의 매무새를 다듬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허물은 이제 우리 자신들만의 허물로 그치는 것이 아니기에 더욱 살피고 또 살피야 함을 깨닫는 시간이길 간구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총성, 양선, 온유, 그리고 절제의 아름다운 열매 맺음을 통해 참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지켜가게 해 주시으며 우리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오직 우리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잊혀진 기도

안세진 집사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도다”
(시편 23: 2)

코로나 여파로 나는 십년 넘게 다니던 회사에서 하루 아침에 해고를 당하고 삶이 허무하게 느껴질 무렵, 마침 남편이 하버드 교환 교수로 일년 오게 되면서 이곳 보스턴으로 오게 되었다. 남편은 열심히 연구하며 바쁜 생활을 하고 아이들은 미국 학교 생활이 행복해 보였다. 처음엔 보스턴 낙엽의 정취와 가을 바람만으로도 모든 것이 충분히 만족스러웠다. 어느 날 이른 새벽부터 찰스강을 따라 조깅을 하는 사람들을 보니 ‘이곳 사람들도 참 열심히 사네.’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그런데 나는 여기 왜 온거야?’라는 의문이 들었다. 이런 물음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네가 여기 오고 싶어했잖아.’라는 마음을 주셔서 나는 참으로 당황스러웠다. ‘네? 제가 언제요?’

순간 어렸을 때 나의 모습이 떠올랐다. 아빠의 사업실패로 우리 집은 참으로 가난했다. 엄마는 그런 가난을 받아들일 수 없었는지 집을 자주 나가셨고 아빠는 밤마다 술을 드시고 온 집안을 부수며 엄마를 찾아오라며 나를 집 밖으로 내보냈다. 학창시절 그런 일상이 늘 반복되었다. 나는 밤마다 기도를 했다.

어느 날부터 내 기도는 같은 내용이지만 이런 서두로 시작했다. “하나님 오늘도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지만..” 대답없는 냉정한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워 떠나고 싶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곳이 없었던 내게 돌아갈 곳은 다시 하나님뿐, 나는 그런 하나님께 항상 같은 기도를 하며 밤마다 두려움과 공포를 마주해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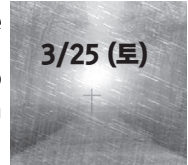
그 당시 ‘초원의 집’ ‘하버드의 공부벌레들’이라는 인기 미국 드라마가 있었는데 나는 그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나도 이집을 벗어나 저런 곳에 살고 싶다는 꿈을 꾸곤 했다. ‘초원의 집’의 미국 대자연에서 자유롭게 달타는 가족들의 모습, 자상한 부모님 밑에서 사랑 받으며 자라는 세 자매의 삶을 보니 너무 부러웠다. ‘하버드의 공부벌레들’이라는 드라마는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몰랐지만 캠퍼스의 큰 언니 오빠들이 나오는 그 곳은 정말 근사하게 보였다. “하나님 저는 미국 남자랑 결혼해서 말타고 다니구요.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에 가보고 싶어요.” 이렇게 엉뚱하고도 맹랑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험박같은 마지막 멘트를 날렸다. “이 기도도 들어주지 않으실 테지만 저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나의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내가 한없이 초라해졌을 때 내가 40여년 전 그토록 원하던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다. 절박하고 가엾은 어린아이의 투정같은 기도마저 잊지 않으시고... 나 에겐 이미 잊혀졌지만 하나님께 잊혀진 기도는 없었다. 그 옛날 어둔 골목길을 헤매던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나의 영혼과 정신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나에게 때마다 천사를 보내주셨다. 미국에서 태어난 자상한 내 남편, 말은 아니지만 비행기를 타고 세계를 다닐 수 있었던 나의 경험들, 그리고 지금은 내가 살고 있는 하버드 캠퍼스가 있는 캠프리지. 하나님은 하나도 남김없이 내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 그리고 이런 나에게 지금 물으시는 듯 하다. “그때 나를 잘 믿고 착한 아이가 된다고 너 기도했지? 지금도 착한 어른으로 나를 잘 믿으며 살아가고 있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멘

Nations, Time, and the Fear of God

Peter Lee



“Moses said to the people, “Do not be afraid. God has come to test you, so that the fear of God will be with you to keep you from sinning.” (Exodus 20:20)

In *The Story of Civilization, Volume 1: Our Oriental Heritage*, historian Will Durant generalizes the rise and fall of nations in the following manner:

“A nation is born stoic and dies epicurean. . . . Achilles is at the beginning, Epicurus at the end. After David comes Job, and after Job, Ecclesiastes.”

A well-known poem from Ecclesiastes further illustrates the cycle of birth, death, and other events which punctuate human life:

“There is a time for everything, and a season for every activity under the heavens:

A time to be born and a time to die,
A time to plant and a time to uproot,
A time to kill and a time to heal,
A time to tear down and a time to build,
A time to mourn and a time to dance,
A time to scatter stones and a time to gather them,
A time to embrace and a time to refrain from embracing,
A time to search and a time to give up,
A time to keep and a time to throw away,
A time to tear and a time to mend,
A time to be silent and a time to speak,
A time to love and a time to hate,
A time for war and a time for peace.”
-Ecclesiastes 3:1-8

However, the final chapter in Ecclesiastes ends with a clear message:

“Now all has been heard; here is the conclusion of the matter: Fear God and keep his commandments, for this is the duty of all mankind. For God will bring every deed into judgment, including every hidden thing, whether it is good or evil.” -Ecclesiastes 12:1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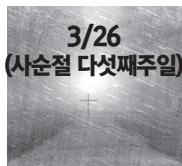
While our individual lives and the overall course of history can be viewed as a sequence of events which may occur in predetermined stages and seasons, the fear of God is like a single bolt of lightning which transcends the circular nature of our time on earth. A fear of God keeps humans from sin (The Ten Commandments, Exodus 20:20). It follows that a lack of fear can lead to sin and spiritual decline. The spiritual decline of individuals leads to a weakening of local communities and, over time, weakened communities cause an overall weakening of the nation, thereby increasing the likelihood of subversion.

My strong belief in the power of the individual will, while critical to many of my successes, also tends to trap me in an endless cycle of personal failures. I believe this is in large part due to a diminished fear of the negative consequences of my own actions, ultimately stemming from my lack of a fear of God. As a result, my service to the church, to the community, and to God never seems to reach its full potential.

On the other hand, if I can temper my self-confidence with a healthy fear of God, I may be able to better avoid many of the recurring pitfalls in daily life. I can then devote more energy to my love of God and to my service to the church. By considering God in the manner of Exodus and Ecclesiastes, we may all be able to reinforce our faith and take steps towards the strengthening of our church, our community, and our nation.

During this lent season and beyond, I pray that we can all fulfill our duty to fear God.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마태복음 5:1-8)

셀린이라는 수녀가 성 테레사 수녀에게 자신의 깊은 고민을 털어 놓았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해도 자신 안에 있는 더러움과 연약함들로 인해 늘 좌절한다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자기 자신은 거룩함을 향하여 가기에는 너무 멀고 높고 높은 산과 같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때 테레사 수녀는 결코 높은 거룩의 산을 올라 갈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가까이 셀린을 만나기 위해 내려 오신다고 말합니다. 도리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수녀가 더 내려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낮은 겸손의 골짜기에서 수녀를 만나시려 거기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테레사 수녀의 놀라운 지혜가 엿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높은 거룩의 산을 오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가장 낮은 곳으로 스스로 내려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들의 가장 낮은 곳에 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온갖 연약함과 추함이 있는 가장 낮은 곳에...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우리들의 더러움이 우리를 청결하게 합니다. 더러움 가운데 찾아 오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바로 청결한 자들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그동안의 두 산의 이미지를 좀 새롭게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산상수훈의 산에 오르셨던 주님은 갈보리 산에 오르셨습니다. 왜 갈보리산에 오르셔야 했습니까? 주님께서 갈보리산에 오르심은 실은 낮은 곳으로 내려 가시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당신께서 인간들의 가장 추한 곳으로 내려 가심을 온 우주에 보이시기 위해서 갈보리 산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감히 이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등을 보여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등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등이 아니셨을까요? 예수님의 등은 우리들에게 여러가지를 보여 주십니다. 인간의 온갖 허물을 짊어지고 가시는 등입니다. 채찍에 맞으시는 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갈보리 산에 십자가를 지고 한 치도 오를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반면 십자가를 지신 등을 바라 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등에 난 채찍 자국을 보면서 우리들의 가장 추하고 모순된 모습 안에서 주님을 만날 것을 원하십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들의 가장 추한 곳과 계시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들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 가시는 주님의 등을 보며 주님을 따라 내려 갈 때 우리들의 마음은 청결해 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뵈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은 더 내려가는 절기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내려와 계신 주님을 만나는 절기입니다.

[2022/4/3 사순절 다섯째 주일 설교문에서 발췌]

그분이 원하는 섬김

이주원 집사

3/27 (월)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제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16-18)

새해가 시작되면서 작년 한해 나의 신앙을 되돌아 보았다. 특히, 부부 청년부 회장으로서는 나의 역할을 다했는 지에 대한 생각을 하였다. 부부 청년부는 펜데믹때문에 1, 2월은 화상으로 만났고 3월 부터 교회에서 대면으로 만나기 시작했다. 3월 첫 모임때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너무 반가웠지만 절반 가량이 처음 보는 분들이라 어색하기도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정신 차리고 매달 두번 씩 교제하고 Earth care and share event 와 찬양의 밤 행사를 준비하며 열심히 섬겼다. 내가 섬기면서 나를 위해 섬겼는지 주님을 위해 일했는지 솔직히 아직도 잘 모르겠다.

교회에서 항상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내가 나의 만족을 위하여 섬기는 지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기 위하여 섬기는 지 늘 조심하려 한다. 그렇지만 막상 주변에서 누가 잘한다고 칭찬하면 내가 다 한 것 처럼 으쓱해지고 누가 못하다고 비난하면 내 욕하는 것 같아서 화를 참기 어렵다. 마태복음 6장 16절-4018절 말씀은 금식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소개 된 구절인데 금식할 때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고 가르치시며 외식하는 자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금식할 때에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만 보이게 해야 한다고 강조 하신다.

이 말씀은 비록 금식에 대한 가르침이지만 어쩌면 섬김과 신앙생활 전체에 적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티내지 않고 이땅의 상을 멀리하고 힘들고 때로는 외로워도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 지난 1년간의 섬김이 그런 섬김이 었는지 한번 더 돌이켜보고 올 한해는 그런 섬김이 될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 겠다고 다짐 해본다. 그리고 지난 한해 묵묵히 주변에서 그런 섬김을 해주신 김수영 목사님, 부청 회장단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주님, 늘 겸손하고 더욱 더 낮아지며 제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3/28 (화)

이웃 사촌

김형범 장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39-40)

우리 한국에 ‘이웃 사촌’이라는 속담이 있다. 서로 이웃하여 살면 사촌보다도 더 가까운 정분으로 지낸다는 말이라고 속담사전에 풀이되어 있다. 가까운 남이 먼 일가보다 낫다라는 같은 속담도 있다.

자녀나 친척이라도 먼 곳에 살면 자주 만나지 못한다. 내 이웃은 친척이 아니어도 자주 만나게 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돕고 좋은 일이 생기면 서로 나누게 된다.상부상조가 먼 곳의 친척보다 더 잘 되어서 사촌 못지 않은 다정한 인정을 나누게 된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우리가 사는 street에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 부부가 이사를 왔단다. 하나님의 은총이로구나. 구역 식구한테서 듣고는 기쁜 마음으로 그 날로 그 집을 찾아 갔다. 마침 집에 없어서 교인 주소록에서 찾은 번호로 전화하니 외출 중이라 하면서 자기네들도 우리가 이웃에 산다는 것을 이제야 알고는 찾아 오려고 했다고 한다. 다행히 우리 아들들보다 한두살 위여서 비슷한 연배들이고, 한국에 사시는 시부모님, 친정부모님 4 분 모두 우리 내외와 비슷한 연배요, 그 중의 한 분은 나와 같은 이복 출신이라고 더욱 친근하게 지냈다. (이제는 이웃 사촌 부모가 하나 늘어서 3 중 고락을 겪게 되었구나)

우리가 먼저 초대해야 하는데 그 집사님네가 먼저 불러 줘서 오찬을 함께 즐겁게 했다. 그 뒤로 자주 왕래하며 음식도 서로 나누어 가며 우리집 뜰에서 불을 피워 번갈아 가며 고구마, 감자, 옥수수, 고기, 밥도 해가며 지낸다. 음식을 하면 서로 나누어 주기도 한다. 집사님네는 한국의 부모님께서 보내 주신 여러 가지 음식이나 귀중한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기도 한다. 우리도 간혹 음식(국,반찬,우리 밭에서 나온 채소,빵 등)을 보내기도 한다. 그러다 여집사님이 먼저 아프다고하여 일주일애 몇 번씩 음식을 해서 보내 주었다. 그러다가 나도 내 아내도 아프게 되었다. 다만 그 분들의 정성이 고맙고 감사하다. 어제는 앞쪽에 있는 미국인 가정에서도 음식을 해 가지고 왔다. 그 집 아들들이 여러 해를 계속 눈만 많이 내리면 기계를 가지고 와서 우리 집 driveway를 치워 준다. 올해에도 지난 번 첫 눈 때 이미 와서 한번 치웠다.

우리의 지구에는 여러 인종들이 산다.서로 지구촌 안의 이웃으로서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세상이 되면 어떨까? 온 지구촌이 서로 사랑하는 평화의 마을로 되어 예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지구 상에도 이루어지는 그 날을 기다리며 기도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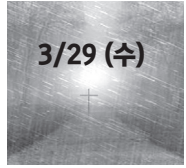
이 지구촌에서 내 이웃을 인종, 종족,피부색 등으로 차별하지 말고 모두가 내 이웃 형제 자매로 내 몸같이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나귀 이야기

박신영 장로

3/29 (수)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요한복음 12:14-15)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반대로 나귀는 아주 영리하고 놀라운 기억력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본 사람을 30년간 기억하고, 한번 간 산 길은 혼자서도 잊지않고 찾아가서 여행객들의 길잡이 노릇도 하고, 자기 영역을 지키는 본능과 웬만한 들개나 늑대같은 짐승들과 싸워 지지않는 용맹함과 주의력으로 양치기 역할도 한다고 한다. 조심성이 많아 주인이 강요해도 위험한 곳으로 쉽게 발을 들여 놓지 않아서 고집이 세다고 오해도 받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설득하고 길들이면 혼자서도 주어진 임무를 척척 수행해 내는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다. 겁이 없는 나귀는 벌목 작업을 할 때 옆에서 나무가 쓰러져도 놀라지 않아, 겁이 많은 말들 옆에 묶어두면 같이 있는 말들이 안정을 찾는다고 한다. 또 자기 몸무게 반이상의 짐을 지고 하루 종일 다닐 수 있는 체력과 폭이 좁은 길을 패션 모델처럼 발을 교차하며 걸어서 험악한 산지 절벽 옆길에 최적화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나귀는 뛰어난 인내력과 적응력, 그리고 강인함으로 오랫동안 사람들의 다양한 활동을 도우며 짐꾼으로 사람들과 함께 했다. 지금도 춥고 험악한 히말라야 산맥과 덥고 건조한 아프리카의 사막에서 활약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애굽왕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나귀를 선물하는 것을 시작으로 (창 12:16), 성경에는 나귀가 148번 등장한다고 한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사드리기 위해 모리아 땅으로 갈때 나귀는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갔고, 흉년에 애굽으로 간 요셉의 형들은 곡식을 나귀에 실고 돌아왔고, 안식일에는 나귀도 쉬게 하라고 기록 (출23:12)되어 있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멈추었다고 매질을 하는 발람에게 항의하며 말도 했던 나귀 등, 수많은 성경의 역사에 나귀가 등장한다. 예수님도 공생애의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어린 나귀를 타셨다. 아직 아무도 태워보지 못한 익숙치 않은 걸음을 내디디며 예수님을 태운 어린 나귀는 열광하는 군중들 사이로 침착하게 나아갔고, 오래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예루살렘 입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주가 쓰시겠다... (눅19:31)’라는 부름에 묵묵히 자신의 몫을 최선을 다하는 나귀의 모습에서 섬기는 종의 모습을 본다.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짐을 지는 나귀처럼 섬기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믿음의 선진들

3/30 (목)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6)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 복된 인생이라 생각합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온갖 죄악된 풍조를 따르지 않고 구별되고 거룩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도를 따르는 그 삶은 정말 아름다운 것임에 틀림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의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이 겪었던 수난처럼 핍박과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있다는 고백 그 자체 였습니다. 그리스도인 이라는 말도 초대교회 안디옥에서, 그것도 자기들이 부른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빈정거리며 자기들과는 다른 삶을 사는 그들에게 붙여준 이름이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여전히 그때처럼 세상과는 다른 삶,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겠지요?

모든 종교가 다 그렇지만, 유독 기독교는 배움의 종교인 것 같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소그룹 성경공부와 구역 모임 그리고 교우님들과의 이런 저런 모임과 교제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과 삶을 공유하므로 서서히 성화의 길,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 아벨, 에녹,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등을 보여 줍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 위대하고 커보여 감히 나의 믿음과 견주기 어렵고 그들의 믿음은 나와는 먼 거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얼마전 이 영길 목사님은 제직 임직 예배 설교 중 “등을 보여주는 예수님”에 대해 말씀 하셨습니다. 주님의 등을 바라보며 섬김의 모범을 보이는 선배 제직의 등을 보고 따를 때, 언젠가 다른 교우님들도 그들의 등을 통해 주님의 등을 만나게 된다고...

저는 보스톤한인교회에 와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만났습니다. 꼭 1년 후면 70주년이 되는 우리 교회의 기나긴 역사 속에는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의 땀과 눈물들이 모자이크 처럼 잇대어 보스톤한인교회라는 공동체를 일구었습니다.

저는 오늘 약하다 약한 그의 등을 보여주는 믿음의 선배 한 분을 소개 합니다. 그는 교회 앞 주차장에서 현관 까지 30여 미터의 거리를 약 30분 걸려 들어 오십니다. 그는 지난 13년간 불편한 반쪽의 육신으로 주일 날은 어김 없이 교회로 출석 하십니다. 그는 복도에서 눈이 마주치면 마스크를 써 입은 보이지 않지만, 눈으로 활짝 웃어 주시고 가려진 손으로 악수를 청하며 손을 잡아 주십니다. 매주 성경공부 시간에도 빠짐없이 참석하시고 경청하시며, 가끔씩 미소로 말씀에 긍정 하시고 한자로 풀어 십자가 예수님을 느껴 알게 하십니다. 전교인 탁구시합 때도 경기는 못 하시지만 참석해서 자리를 지켜 주시고, 전교인 야외 예배 때도 공원에 오셔서 청년들과 함께 하시며 믿음의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몸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는 자신이 진정 하나님으로 부터 사랑받는 자, 선택 받은 자임을 알고 있고, 상처 받은 그 육신으로 이웃을 축복해 주고 격려하며 함께 사랑 받으며 믿음의 길로 나설 것을 그의 삶으로 보여 주십니다. 조그만 핑계 거리나 바쁜 일만 있어도 주일 날은 거스리고 싶은 우리의 앞은 믿음에 그는 몸으로 영원을 말하며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 하십니다.

이제 곧 겨울이 오고 날씨가 추워지면 마비된 반신이 감각이 무디어져 더욱 고통스럽다 합니다만, 그의 믿음에 대한 여정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부디 이 겨울도 하나님의 공활하심으로 잘 이겨 나시기를 온 교우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며, 가장 좋아하신다는 찬송가 94장 (주 예수 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를 보냅니다.

(11월26일 쉼마의 밤에)

금, 은, 보화, 권력, 명예 이 모든 세상 것을 다 준다해도 주 예수 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믿음의 확신을 오늘 가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몸의 병을 자가 치유하는 방법

박영철 장로

“여호와 내 하나님이며 내가 주께 부르짖으매 나를 고치셨나이다.”
(시편 30:2)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많은 질병에 시달릴것을 미리 아시고 최초의 사람, 아담의 몸에 치유 유전자 즉 치유를 위한 coded message 를 넣어 두셨습니다. 그 치유의 유전자가 우리몸에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병의 치료를 바라는 긍정적인 태도,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있을때 치유 유전자 즉 치유를 위한 coded message가 activation 되고 , repair enzyme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enzyme 은 병이 생긴곳을 잘라내고 정상 상태로 되돌려 놓기 시작합니다. 그 때 적절한 음식, 꾸준한 운동, sauna 에서 땀을 흘리며, hot tub 에 몸을 담구고, 충분한 휴식은 repair enzyme 을 최적량만 들어 적기 적소에 사용되어 병이 생기는 곳을 잘라내고 정상 상태로 되돌려 놓습니다.

치유유전자는 거의 완벽하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적기 적소에 필요한 물질이 있어야하고, 발병의 원인이 없어져야합니다. 하나님의 coded message는 거의 완벽하나 현대 사회에서 발병의근원, 예를들면 암을 유발하는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적기적소에 필요한 물질이 공급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치유 유전자는 많은 병들을 어느정도 치유 및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음식을 먹으며 몸의 온도를 높이기 위하여 운동과 sauna, hot tub을 하며 저의 몸의 변화를 관측해 보았습니다. 눈의 시력이 좋아지고, 기억력이 향상되며, 청력이 좋아졌습니다. 매일 운동을 하고 sauna 에 들어가고 hot tub 에서 womb environment와 비슷하게 만들기 위하여 몸 전체가 잠기고 입과 코만 수면위로 올라온 상태로 있습니다. 안경도수가 점점 강해지고 눈 안에 있는 lens 가 clouding 이 생겨서 야간 운전할때 sunglass 를 사용하였으나 매년 안과 전문의를 2 명 만나 안경도수를 높이는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의 건강을 위하여 blueberry 와 Lutein 을 매일 먹었으나 운동, sauna, hot tub 을 하면서 시력이 좋아져 안경도수가 낮아지고 지금은 거의 안경을 안쓰고 지냅니다. 야간 운전도 sunglass 를 거의 안쓰고 하고 있습니다.

전지 전능하시여 우리가 많은 병으로 인한 어려운 삶을 살것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자가치료 방법을 오래전에 알려 주셨으나 저희들이 무지하여 이제서야 조금 알고 실행 할수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아멘

나의 걱정 vs 하나님의 웃음

김하나 장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19)

매 해 연초가 되면 나에게 중요한 임무가 주어진다. 우선, 올해의 재의 수요일은 언제인가? 부활주일은 언제인가? 달력을 뒤지는 일로 시작하여 우리를 위한 ‘사순절 목상집’을 준비하는 것이다.

시간 계산을 하며 언제까지 원고 마감하고, 편집하고, 수정하고, 디자이너에게 넘기고 또 마지막 수정하고 인쇄소에 넘기고... 그리고 완성된 인쇄물 책자가 재의 수요일 전에 교회에 도착 되어질 때까지 조바심의 시간을 가진다. 교인들이 책자를 받아보기까지 이러한 많은 시간과 과정이 소요된다. 그 다음엔 교인들의 손에 들리워져 하루하루 은혜의 목상의 시간을 갖게되는 것으로 연초의 조바심의 시간은 치유의 보상을 받게 된다. 이 완성품들은 전 교인들의 한땀 한땀 깊은 마음의 목상으로 모아져 보석들의 모음으로 이루어 지는것이다.

늘 초조하게 언제쯤 모여질까, 마감일이 며칠 앞남았는데 겨우 손가락 꼽을 수만 모여졌네... 모두 막차를 탈려나 보다...

올해도 기다리지 못해 또 한차례 이메일 공약을 했다.

“20○○년도 사순절 목상집을 위한 은혜의 글 부탁드리려 글을 올립니다.

마감일이 촉박해 오는데 원고의 부족으로 또다시 마음이 조급해져 옵니다. ㅏㅏ’

올해도 또 이렇게 시작하는구나~~하는 울쌍짓게 되는 시간이지만...

이러한 찌뿌러진 불평에도 하나님은 웃음으로 받아주시는건지 결국엔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는데, 또 한바탕의 불평은 거두지 못하는 소인의 맘을 ○○님은 헤아려 주실줄...”

작년 사순절 기간동안의 주일 설교를, 올해 사순절 기간동안 재생하기위해 7번 주일의 설교를 읽어보았다. 그 중 한 설교 말씀중 어느 목사님의 글을 인용하신 내용이 맘을 사로 잡았다. “모자라도 행복했다”... 이것이 목상집을 준비하며 초조해 하는 나의 모습이 변화해야 하는 요점이 되었다. 아직은 많이 모자라지만 앞으로 채워질 것을 기대하며, 아니 믿으며 모자라도 행복해야 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그리고 후반부에 목사님의 더 큰 메세지가 맘에 들어왔다. “풍성해서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쭈글거리는 믿음도 어여삐 여기시며 웃음으로 응답해 주신다.

“이제 풍성하니 행복하냐?”...

앞을 바라보며 비어진 여백에 초조해하는 나의 부족한 믿음에 위로의 쓰다듬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마태복음 5:1-9)

누가복음에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 41, 42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시면서 한편으로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이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를 모르신다는 것입니다. 반면 이 나귀새끼를 타는 것이 평화와 깊은 관계가 있음을 은연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되뇌이신 것입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 곧 일곱 번째 팔복을 말씀하실 때 언젠가 아니 삼 년 후 당신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을 상상하시며 이 말씀을 하시고 계셨을 줄 압니다. 주님은 평화의 길을 완성시키시려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며 일곱 번째 팔복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1년에 세 번 예루살렘으로 순례의 길을 떠나 왔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주님께서 공생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순례의 길을 떠나 오셨고 이번에는 특별히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계십니다.

원래 순례자들은 먼 길을 나귀나 말을 타고 오다가도 예루살렘성에 와서는 걸어서 예루살렘을 들어 왔다고 합니다. 물론 이 때도 로마군인들은 당연히 말을 타고 들어 왔구요. 유명한 타이투스 황제는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 자신의 마차가 들어오기에 예루살렘 성문이 좁아서 성문을 부수고 넓혀서 마차를 타고 들어 온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중략)

한편 주님께서 나귀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시는데 무리들의 합창을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나셨을까요? 당연히 다윗의 어떤 모습이 생각나지 않으셨을까요? 기억하실지 모르시겠지만 작년도 송년 주일 예배시 ‘다윗의 군대’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22:1, 2절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 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빛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사백 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은 사실은 경쟁에 실패한 자들의 장군이 되었던 것입니다. 숫자 게임에서 진 사람들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곧 꼴찌 왕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다윗의 자손이 되어서 꼴찌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숫자를 모르는 자들의 왕을 통해서 세상에 평화가 올 것임을 보여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김을 받게 될 것임을 주님은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2022.4.10 종려고난주일 설교문에서 발췌]

금지옥엽 손녀의 기도

이혜승 장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18)

우리 동네 시니어 분들의 패션을 이끄는 선두 주자이자 노인대학 초대 학장이셨고, 또 무도회장에 여고생들 잡으러 등장하는 전설의 그 학생주임이셨던 나의 할머니, 박찬순 권사님. 참 열정적으로 삶을 살아내셨고, 또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셨던 팔방미인 할머니. 생애 첫 손주가 쌍둥이라는 임신소식을 접하시고 망설임없이 “내가 키워줄게”라고 화끈하게 말씀하시며 정든 교정을 떠나셨답니다. 그때부터 에너제틱 박찬순 할머니와 그녀의 금지옥엽 손녀인 저와의 짧지만 찬란한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열정적으로 또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셨던 할머니는 어떤 예배에도 한 번을 빠지시는 법이 없으셨더랬습니다. 평소처럼 수요 예배에 가셨던 할머니의 소식을 다시 접한 건 할머니가 집을 나서고 한 10여 분정도 후에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서둘러 도착한 응급실 간이 침대에는 방금 전 빠이빠이 하며 손을 흔들며 드렸던 나의 할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마치 주무시는 것처럼.. 충치 하나 없이 건강하시던 나의 할머니는 그렇게 아무런 예고도 없이 홀연히 금지옥엽 손녀의 곁을 떠나가셨습니다. 마치 하늘로 승천해버리신 것처럼... 떠나시던 마지막 길도 금쪽같이 여기시던 이 손녀를 위해 기도하러 가시던 길이었습니니다. 그 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3일만의 부활하신 주님처럼 혹시 우리 할머니도 3일 지나면 짜잔하고 별떡 일어나지 않으실까 하고 장례식장을 지켰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24시간을 붙어지내던 가장 친한 베프였던 할머니의 갑작스런 소멸은 정말 세상이 없어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슬픔의 극치를 온 몸으로 느끼게 한 그 3일의 기억은 강산이 3번이나 바뀐 지금도 사순절 기간이 되면 생생하게 다시 온 몸으로 느껴지곤 합니다. 아마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느끼던 그 상실감이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합니다. 나의 세상이 무너져내린 느낌.. 아마도 어머니 마리아의 심정이었을게고, 수 많은 제자들의 심정이 아닐까 조심스레 짐작해 봅니다.

그러나 세상을 전부 잃은 상실감에 빠져있던 그들의 비통함을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방에 역전시키셨죠. 부.활.! 그로 인해 우리는 희망이라는 선물을 안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큰 축복을 거저 받았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한 걸음 더 주님을 만날 날에 다가갑니다. 또한 천국에서도 이 손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실 할머니를 다시 만날 날도 하루 더 가까워집니다. “제 삶이 다하는 그 날까지 당신의 거룩한 희생으로 얻은 새 삶과 희망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할머니가 반복하여 기도하시던 이 구절은 이제 저의 기도가 되어갑니다, 주님이 구원해주신 새 삶과 희망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사순절 기간이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의 거룩한 희생으로 우리는 평생 희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 어떤 고난과 시련, 슬픔 속을 견고 있어도 당신이 선물하신 귀한 희망이 또 내일을 살아가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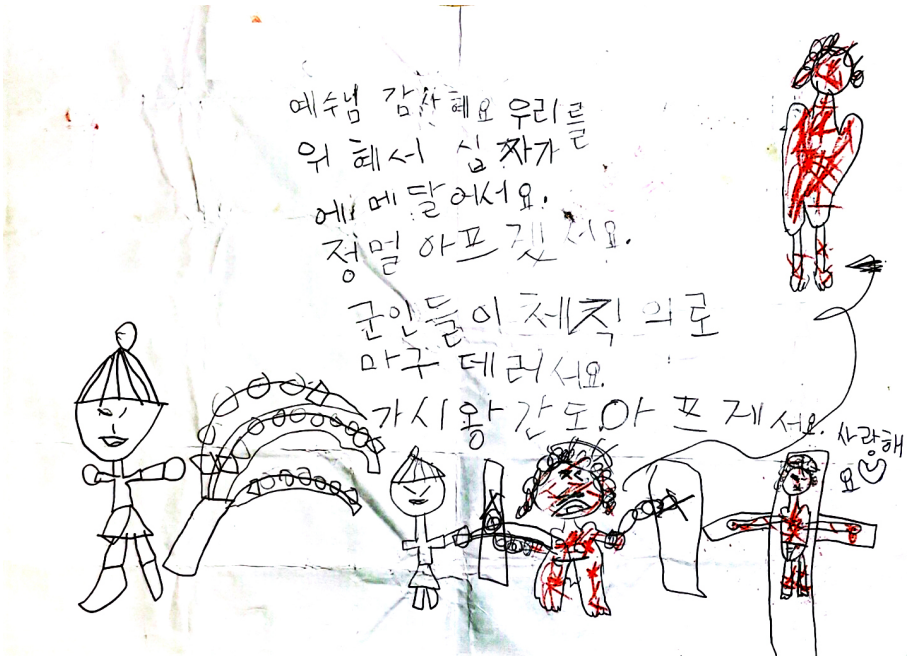
예수님께 드리는 편지

차지안 어린이 (당시 만 6세)

4/4 (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16)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께 미안해서 세상사람들을 대표해서 쓴 편지입니다.



보스턴에서 좋은 경험과 추억 많이 만들게 해주세요. 아멘

영광이 가득한 보스톤 성전

김문소 장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16)

요즘 추운 겨울에 역대하 교재로 주일 성경공부를 하면서 불길로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 (대하7:1)처럼 우리도 뜨겁게 같은 체험을 하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나요? 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전3:17)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난 2년간 코로나로 ONLINE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나 해이해진 저희 예배 태도를 반성합니다. Online 예배로 교회 왕복 1시간 이상과 60 miles 이상 절약하던 제 모습을 회개합니다. 1부 대면예배 후 바빠 집에 돌아와 10시 반에 바울반 성경공부에 참석하려면 사실 시간이 뻘뻘합니다. 또 Mask하고 대면예배가 가능해진 후에는 예배 후 보고 싶은 교우들과의 재미있는 친교시간이 없으며 Online예배만 고집했던 자신을 회개합니다. 특히 저희 Senior 가 코로나에 더 위험하니 몸사려 Online 예배만 드린 죄 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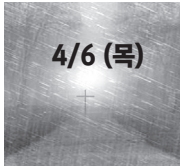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시42:1)이 없었던 것이죠. 성전에서 드리는 거룩한 예배의 본질을 코로나 핑개하며 잠시 잊고 있었지요.

역대하5:11-14 를 읽으면서 우리들 스스로 몸과 마음을 정결하고 정돈된 자세로 예배에 임하지 못했던 것 반성합니다. 또 저희의 온 정성과 힘을 모아 소리높여 찬양과 감사 드리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우리의 대면예배 중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죽더라도 경험되길 갈망합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출애굽의 하나님이 지금까지 70년간 우리 보스톤한인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1975년 10월에 필라델피아에서 이사와 이곳 보스톤한인교회에서 처음 예배 드릴 때에 ‘이 교회당이 우리 교회였으면’ 하는 바람을 22년후 1997년에 교회 건물을 우리 한인교회가 운영하게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교회당만 아니라 우리 보스톤 한인교회 교인 한사람 한사람 위에 하나님 영광으로, 성령의 임재로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 초대교회때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지금 우리 보스톤한인교회 위에 하나님 영광과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Newsbreak

심진희 집사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마태복음 4:26)

Newsbreak라는 앱이 있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가지 뉴스들을 local 중심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notification으로 알려주는 앱입니다. 아시다시피 뉴스는 주로 끔찍한 사건사고들을 알려줍니다. 어느 누군가의 사고, 실종, 살인, 총기사건, 전쟁 등등 상상하기도 싫은 이 세상 모든 일들을 이 앱은 친절하게도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처음에는 내가 사는 동네와 주변 상황들을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너무 많은 소식에 과부하가 걸리고, 잔인한 뉴스들로 인해 점점 두려움과 걱정하는 마음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세상과 인간이 무서워지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앱을 지워야하나 여러차례 고민도 되었습니다. 아직도 깜짝 놀랄때가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나를 적응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가지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그 어떤일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죽음까지도 담대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잠시 머무르는 이 땅에서의 삶을 물론 최선을 다해서 살아나가야 하겠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우리는 걱정과 근심거리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저는 하루라는 주어진 24시간 동안 꽤 많은 시간을 크고 작은 걱정으로 시간을 많이 보낼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이 너무 소중한 이 모든 것이 깨질까 시간이 흘러가게 두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저의 두려움이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다 풍랑을 만나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말라하시고, 바다를 잠잠케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며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살아야겠습니다.

이제는 여러가지 뉴스 속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좋은 소식에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수고와 헛되지 않도록 모든 순간을 감사함으로 더욱 순종하며, 요동치는 우리들의 마음도 잠잠케 하실 예수님을 믿으며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저희들 마음 속에 거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아멘

구원의 완성 선포

주미옥 권사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30)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세상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대속 재물이 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겿사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시며 하나님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막 14:36)

1)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막 14:37)

2)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막 14:38)

3)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막 14: 41)

십자가위에서 운명하시기 전 6시간 동안

고통중에 하신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1)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군병 등 핍박하는 자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눅 23:34)

2)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라며

예수님 곁에서 함께 불행한 최후를 맞는 십자가에 달린 자의 부탁에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3) 가정을 중요시하는 의미인 “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요 19:26)

하늘 가족을 의미하는 “보라 네 어머니라” (요 19:27)

4) 십자가상에서 최후를 맞는 구원의 주님께서 하나님께마저 버리심을 당해야 하는 절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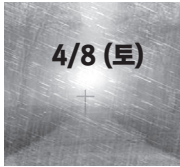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막 15:34)

5) 인생 세계의 모든 목마름을 연상케 하는 “내가 목마르다” (요 19:28)

6) 구원의 완성 선포 “다 이루었다” (요19:30)

7) 숨을 거두시기 전 마지막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눅 23:46)

주님! 무슨말로도 표현이 불가능한
주님의 긍휼히 여겨주심과 가이없는 은혜에 겸손히 진심을 담아 감사 드립니다. 아멘



사랑, 십자가, 영원

박미영 교우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 19:30)

안다고 하지만 난 무엇을 제대로 아는가
시간에 공간에 환경에 제도에 형편에 쫓겨 사는 이 연약한 내가
경험해 봐야만 그 심정과 처지를 아는 이 연약한 내가...

아이를 낳고 나서야 알게 되는 성탄절의 기쁨과
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면서 아팠을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를 천국에 보내드리고 나서야 알게 되는
숭고한 희생과 사랑,
그리고 내 마음에 늘 존재하는 그 숨결과 영원함.

이제서야 조금씩 아는듯한데
난 아직 얼마를 더 모르는 걸까
하루, 하루 깨달아
진심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며 감사할 수 있길 소망한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걸 아시기에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친히 다 이루시고 가신 그 사랑
믿기만 하면 되는 그 사랑
그 사랑 자체이신 분과 마주할 날을 기대한다.
그 날 만나면 감사하다, 사랑한다, 영원히 함께 있고 싶다 말하리...

주님을 마주하는날 저는 고백하겠습니다. 늘 함께 하겠다고...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자는...

이영길 목사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1-12)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역사책은 옥성득 교수님이 지은 ‘첫 사건으로 본 초대한국교회사’입니다. 1887년 10월 16일 최초의 한국 개신교인 여자 세례식이 거행되었다고 합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그 날의 일을 당신의 일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최초로 세례 받은 한국 여성: 10월 16일 일요일에 나는 29세의 젊은 부인인 최 씨의 아내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녀는 질문에 분명하고 명확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거의 틀림없이 이 나라에서 개신교 선교사에 의해 세례 받은 최초의 여성이다. 나는 우리 감리회가 안방 안으로 진출하는 것이 무척 기쁘다. 말씀을 받은 다른 여성들도 있다. 이 첫 열매로 인해 여호와께 감사를 드린다.”

이 여인이 자신이 최초 개신교 여성 세례자로 역사에 기록된 것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아펜젤러가 이렇게 기록한 것도 영광인데 하늘 나라에 기록된 것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한편 어느 역사가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1887년 전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그 나타나심을 먼저 본 자는 또한 여인이더니, 조선 교회가 시작될 때에도 주를 먼저 깨달은 자는 또한 여인이라. 이는 어찌 거대한 일이 아니리오.”

이 땅에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위해서 한 모든 일들은 거대한 일들입니다. 이를 우리는 하늘 나라에 가면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살면서 고백합니다.

“모자라도 행복했습니다.”

하늘 나라에서 또한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풍성해서 행복합니다.”

우리가 팔복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2022.4.17 부활주일 설교문에서 발췌]

나의 묵상

